



할머니가 들려주는

신약 성경 이야기

박혜영 지음
김지훈 편집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 신약

지은이 / 박혜영

편집자 / 김지훈

Copyright ©

2025년 9월 10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15,000원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ible Stories Read By Grandma”
New Testament

— H. Y. Park & J. H. Kim —

아이들도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쓴 인물 이야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 2:15).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정작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전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늘 있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통해 최소한 이 정도의 이야기는 듣고 배워야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 목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혜영 자매님께서 자신의 손주들을 위해 신구약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요약해서 알기 쉬운 문체로 직접 노트에 적어 제게 주셔서, 제가 살펴보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으로 내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더 확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매님께서 2년 여에 걸쳐 여러 이야기들을 써 주셨습니다.

그 뒤 이것들을 정리하다 보니 구약부터 신약까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할머니가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김지훈 형제님께 부락을 드렸고 김 형제님께서 자매님의 글들을 중심으로 더 추가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약에서 62개, 신약에서 30개, 총 92개의 이야기들이 정리되고 편집되었습니다. 또 주일학교나 부모님들의 교재로 쓰일 것도 감안해서 각 장의 끝에는 각 이야기의 요약과 적용도 추가하였습니다.

비록 아이들을 위해 쓰였지만 이 책은 친구약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 주는 좋은 안내서이므로 어른들도 한번 읽어 보시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침례교회 미디어 선교를 통해 이 책이 무료 PDF 파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기도합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박혜영 자매님, 김지훈 형제님 그리고 교정에 참여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잘 편집해서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만들어 주신 김재욱 형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생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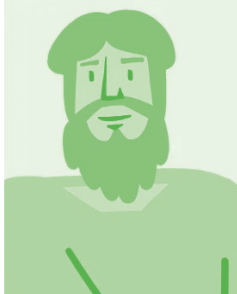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잠 30:5).

서문 8

1.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8
2.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18
3.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 26
4. 예수님을 증언하고 기록한 요한 34
5.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39
6. 예수님을 받아들인 니고데모 44
7. 예수님을 거부한 가야바, 빌라도, 헤롯 49
8.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54
9.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청년 57
10.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들을 용서받은 여인 60
11. 영원한 생명을 구한 사마리아 여인 65
12.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믿은 마리아와 마르다 71
13. 음행을 용서받고 새 삶을 얻은 여인 77
14. 딸의 병 고침을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 80
15.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83
16.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 88
17.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베드로 95
18. 오순절 날 성령님의 침례로 시작된 교회 104
19.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108
20. 신약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114
21. 하나님께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119
22.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심한 바울 126
23.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132
24.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138
25.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149
26.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된 사도 바울 157
27.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171
28.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광의 왕 그리스도 187
29.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년 왕국 194
30.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200





신약 성경

**Bible Stories
Read By
Grandma**



Part 1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번에는 할머니가 아주 아름다운 음악 한 곡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 그 곡의 제목은 바로 「예수, 인류 소망의 기쁨」(Jesu, Joy of Man's Desiring)이란다. 유명한 음악가 바흐가 만든 곡인데, 유튜브에 가서 제목을 쳐 보면 쉽게 들을 수 있어.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는 멋진 곡이란다.

“어? 갑자기 왜 음악 이야기지?” 하고 궁금해할 거 같구나.

그건 이 곡이 바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

이란다.

세상에는 정말 알아야 할 것들도 많고, 배워야 할 것도 많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단다.

그게 뭘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나의 인격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란다.

이게 왜 중요할까? 그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야.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알려 주는 책은 뭘까? 너희도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성경이지! 특히 신약 성경에 있는 네 개의 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와.

이 두 표현은 매우 중요하단다.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신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이지.

그럼, 지금부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배워 보자꾸나.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당시에는 유다 왕국이 이미 오래전에 멸망한 뒤였지. 이스라엘 민족은 수백 년 동안 여러 나라에게 지배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어.

그래도 유대 땅이라 불리던 곳에는 자신들의 조상을 기억하고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다.



그중에서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중심지였지.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삶과 믿음이 이어지고 있었어.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왕이었는데, 그는 에돔 사람이었지. 로마 제국이 그를 사분영주, 즉 한 나라를 네 지역으로 나누어 그중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 놓았거든.

그리고 헤롯과 함께 유대인들을 이끌던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 이 공회의 대표는 대제사장이었고 약 70명 정도의 유대인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들로 구성되어 있었지. 공회는 비록 정치적인 권한은 크지 않았지만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리 평안하거나 자유롭지만은 않았단다.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였지만,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사는 변두리의 시골 같은 곳이었어.

갈릴리 지역에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곳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셨단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인사했지.

“크게 호의를 입은 여인이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를 듣고 불안해졌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천사는 이어서 말했어.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이제 네가 아기를 갖게 되어 아들을 낳게 될 테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좌, 즉 이스라엘의 왕위를 주실 것이며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니라.”



마리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

“하지만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천사는 이어서 놀라운 소식을 하나 더 말해 줬어.

“네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 여섯 달째 아기를 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같은 마을에 사는 목수 요셉과 정혼한 사이, 즉 결혼을 약속한 관계였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와 마찬가지로이지만 곧바로 함께 살지는 않고,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마련한 다음에야 함께 살 수 있었어.

이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가진 게 넉넉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착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귀에 깜짝 놀랄 만한 소문이 들렸어.

“아니, 글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대!”

요셉은 너무 충격을 받았지.

‘아직 우리가 함께 살고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당시 유대의 법과 관습에 따르면, 정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기를 가지면 큰 죄인으로 여겨졌고 심지어 돌을 맞아 죽는 벌을 받을 수도 있었지.

하지만 요셉은 그런 끔찍한 일을 마리아가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조용히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마음먹었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리아를 보호하려는 따뜻한 마음이었단다.

그날 밤, 요셉의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했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님께서 주신 생명이니라. 마리아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 주어야 하느니라. 그 아기는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구원자이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던단다.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였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한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마 1:22-23)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심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뒤, 꿈에서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기 때문에 더는 망설이지 않고 마리아를 따뜻하게 맞이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 등록을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야. 이걸 일종의 세금 명부 조사,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 등록 조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고향으로 가서 이름을 등록해야 했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사는 북쪽 마을 나사렛에서부터 한참 아래쪽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만 했어. 아기를 뱃 몸으로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 게다가 마리아는 오늘날 아기를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거 같구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작은 도시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

다른 지방에서 그곳으로 조세 등록을 위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관의 빈방을 찾는 일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지.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나마 다행히 어느 여관의 허름한 마구간에 머물 수 있게 되었어.

그들은 그 마구간 한쪽에 자리를 잡았고 바로 그날 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단다. 마땅히 아기를 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말이나 소의 밥그릇인 구유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천으로 싸맨 아기를 조심스레 눕혔지. 궁궐이나 부잣집이 아닌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

그 시각,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는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깨어 있었어.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지만,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빛나고 한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났지! 목자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몸을 떨었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



느니라. 싸매는 천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눅 2:10-12)

요셉과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행했고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 이 이름은 그분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생기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 준 이름이었지. 그리고 마리아의 정결례까지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단다.

그때 성전에는 나이가 많은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시므온,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여자 대언자였지.

하나님께서서는 시므온에게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드렸단다.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눅 2:29-32)

안나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누구인지 기쁘게 전했다.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마음 깊이 간직했단다.

메시아를 찾아가는 지혜자들

아기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젖을 떼고 두 살쯤 될 때까지 머무르셨던 거 같아. 아직 어린 아기를 데리고 먼 나사렛까지 다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유대 땅 동쪽에서 온 한 무리의 사람들, 바로 지혜자들이 그곳에 도착했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기도 했지.

어느 날 밤, 아주 특별하고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났고, 그들은 그 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을 가리킨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아주 먼 길을 찾아온 거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에게 물었어.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죠? 우리는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랐지.

“뭐라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자기가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헤롯은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은 조급해졌어. 곧바로 제사장들과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들을 불러 따졌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느냐?”

그러자 그들은 구약 성경의 대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대답했지.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이같이 기록하시기를,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네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마 2:5-6)

이 말씀을 들은 헤롯은 더욱 신경이 곤두섰어. 그는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처음 나타난 시기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

“베들레헴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그 어린아이를 잘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 주어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구나.”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단다.

헤롯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을 없애려고 했던 거지.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늘 불안함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아무튼 이렇게 다시 베들레헴을 향해 떠난 지혜자들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따라왔던 특별한 별을 계속해서 쫓아갔지. 마침내 그 별은 지혜자들을 요셉과 마리아가 머무는 집으로 안내했어.



그 집에 도착하자, 지혜자들은 얼마나 기뻐하면서 감격했는지 몰라!

그들은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드렸어. 그리고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해온 보물함을 열었지. 거기에는 정말 귀한 예물들이 담겨 있었는데, 왕에게 드리는 값비싼 선물인 황금, 향기로운 예배 때 사용하는 특별한 향료인 유향, 몸을 깨끗하게 하거나 죽은 이를 정성껏 싸는 데 쓰이는 귀한 기름인 몰약이 었단다.

이 모든 선물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예물이었어. 그날 밤, 지혜자들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거라.”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덕분에 그들은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조용히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

그들이 떠난 밤에는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

“요셉아, 어서 일어나라!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느니라.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다시 알려 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요셉은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 짐을 꾸려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밤중에 베들레헬을 떠났단다. 그들은 멀고 낯선 땅,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었지. 아마도 지혜자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집트에서 생활하는 동안 요셉네 가족이 필요한 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 같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이루어 가셨단다.

요약과 교훈

-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예수님은 베들레헬 마구간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어요.
- 동쪽에서 별을 따라온 지혜자들은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이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지켜 주셨어요.

적용

-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 지금도 우리 삶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Part 2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헤롯 왕은 마음이 점점 초조해졌다. “왜 동쪽에서 온 지혜자들이 아직도 안 오는 거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꼭 자기에게도 알려 달라고 했는데, 여태 못 찾았을까 싶기도 하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정작 지혜자들이 아무 말 없이 다른 길로 떠나 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헤롯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노발대발했어. 얼굴은 벌게지고 눈빛은 무섭게 바뀌었지.

역사에 보면 헤롯은 자기 가족들까지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 버릴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었지. 가뜩이나 성격이 사납고 잔인한 왕인데, 이번에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무서운 명령을 내렸어.

그는 지혜자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짐작했지. 그리고는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사는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단다.

정말 슬프고 끔찍한 일이었어. 많은 집안에 울음과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켜 주셨단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미리 이집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 그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먼 이집트 땅으로 가서 몇 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

시간이 흐른 뒤, 요셉은 다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

“요셉아,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네 아내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조심스럽게 가족과 함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걱정이 되었단다.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셨어.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마을로 들어가 지냈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이 일도 대언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그대로였단다.

성전에서 발견된 어린 예수님

혹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지 상상해 본 적 있니?

아마도 예수님은 평범한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들은 열두 살 정도가 되면 대



락 성인으로 인정받는데, 아마도 이때쯤부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아셨을 거 같아.

그 사실을 잘 보여 주는 일이 하나 있단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였는데, 매해 그러듯이 유월절 명절 때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신 일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이란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매년 이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절기를 지켰지.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어.

그때는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걸어서 여행했지.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 곁에 예수님이 없어도, 다른 친척들과 함께 앞이나 뒤에서 걸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이 자신들의 무리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당황한 요셉과 마리아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사흘 동안 찾아다닌 끝에 드디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단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경 박사들과 함께 앉아,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과 대답도 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 그 모습을 본 많은 어른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이해력에 깜짝 놀랐다는구나.

어쨌든 요셉과 마리아는 안도하면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가까이 갔어.

“얘야, 왜 우리에게 이런 걱정을 끼쳤니?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아다녔단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

“왜 저를 찾으셨어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셨나요?”



이제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로서 이 땅에 왜 왔는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의 뜻을 그때는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어.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오래도록 생각했단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떠올리며 말이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어.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성장했지. 자라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웃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으셨다는구나.

성경에는 그 뒤로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어린 시절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어.

예수님은 아마도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의 일을 도우며, 가족을 돌보는 맏아들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사셨을 거 같구나. 그래서 훗날 예수님이 나사렛



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던 거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인간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단다.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첫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단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
으며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요 1:1-3)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며,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졌
고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그리고 침례자 요한을 통해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나타
나셨다고 알려 주고 있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말했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 1:17-18)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

왜 꼭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오셨을까?

그저 기적을 보여 주시며 이 땅에 오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더 깊고 중요한 뜻이 담겨 있었단다.

이걸 잘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이 ‘사람’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 성경기록은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건 되돌릴 수 없는 분명한 죄라고 말해 주고 있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 그래서 아담의 피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야.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 3:10)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아무도 없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양’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였어.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이야.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려 주셨지. 가죽옷을 위해 한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고, 희생되면서 피를 흘렸어.

유대 민족이 이집트를 떠나던 유월절 밤에도 어린양의 피를 문에 발라야 했는데, 그래야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수 있었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단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



야만 했는데, 이 역시도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야.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레 17:11)

이처럼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짐승들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 희생당했어. 어린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이 사람들의 죄를 덮어 주기 위해 피를 흘렸지.

하지만 그 짐승들의 피는 어디까지나 ‘잠시 가려 주는 것’일 뿐, 죄를 완전히 없애 주는 건 아니었던단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사람의 생명, 곧 사람의 피로만 온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를 깨끗이 씻어 줄 수 있는 피도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두신 거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을 준비해 두신 거야.

예수님께서서는 죄 없는 단 한 분이기에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한 어린양이 되어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시는 거지. 이걸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심지어 사탄 마귀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이셨어.

그런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는 꼭 필요

한 일이 하나 있었어. 그건 바로, 사람의 죄성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람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야 했던 거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마리아의 몸에 생명이 생기도록 하셨고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처녀 탄생’이라고 부르지.

이 일은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란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아들’ 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이신지를 알려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요약과 교훈

-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지혜롭게 성장했어요.
-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처녀 탄생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죄를 씻기 위한 피의 속죄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있었어요.

적용

-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생각해 봐요.
- 성경 속 대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약속도 꼭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로 노력해요.





Part 3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

약 2천 년 전, 지금의 이스라엘인 유대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들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예수님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한 사람들만 만나신 건 아니었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생활이 만족스러웠던 사람이든 고달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율법에 맞게 사는 사람이든 죄인이라며 손가락질받던 사람이든,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라도 만나 주셨

어. 예수님을 만나 병이 나았던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도 있었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도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마음 문을 열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

그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누구일까?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과 동쪽에서 별을 따라온 지혜자들도 있었어.

이들 외에 예수님을 공생애 전부터 만나고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가족이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사렛의 작은 가정에서 자라셨어.

그 집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있었지. 또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라는 남동생들과 두 명 이상의 누이동생들도 있었단다.

예수님은 형이자 오빠로, 또 아들로써 이들과 한집에서 자라셨지.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마당에서 함께 놀고, 나무를 다듬는 일도 함께하면서 말이야.

“형, 이거 도와줘요!”

“오빠, 저건 어떻게 해요?”

“예수야, 어서 와서 밥 먹자.”

이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가족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너무 가까웠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도 했단다.

예수님의 첫 기적, 가나의 혼인 잔치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셔서 요르단 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의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꾸나. 요르단 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몇몇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어.



어느 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갈릴리 마을 가나에서 열린 혼인 잔치에 초대받았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일주일 동안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였어. 가난한 집이라도 그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음식과 음료를 준비했지. 그중에서도 꼭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포도즙이었단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을 무렵 큰 문제가 생겼어. 잔치에 있어야 할 포도즙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지!

혼인 잔치를 준비한 가족들은 당황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어.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한 가족과 가까운 사이였던 거 같아.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떤 기대를 품으며 예수님께 살짝 말을 했거든.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는구나...”

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셨어.

“여자여, 어째서 저에게 그걸 말씀하십니까? 아직은 제가 어떤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이 조금 놀랍게 들리지 않니? 예수님은 마리아를 정중하게 “여자여”라고 부르셨어. 예전처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말이야. 아마도 예수님께서서는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사명을 시작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말씀하신 거 같아.

마리아는 잠시 당황했을지도 몰라. 한편으로는, 마리아가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구나. 성령님으로 인해 아기를 가지게 될 거라고 알려 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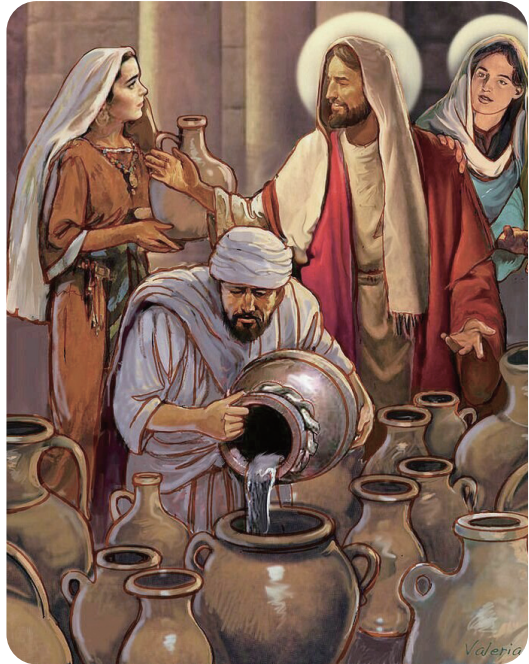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열두 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도 기억났겠지.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셨나요?”

지금 이 순간, 마리아는 어렵듯이 ‘이제 그때가 온 건가 보다’ 하고 느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무언가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평소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마리아는 잔치에서 일하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려무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실 때가 왔다는 걸 아시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어.

“저기 있는 항아리들에 물을 가득 채우거라.”

예수님께서 가리킨 쪽에는 큰 돌항아리 6개가 있었어. 유대인들은 손이나 발을 씻는 정결 의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잔치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 깨끗한 물을 담은 큰 돌항아리 6개가 있었던 거지.

지금 우리가 쓰는 큰 생수통, 즉 정수기 위에 올려지는 파란색 생수통 알지? 그걸 4개에서 6개를 가득 채워야 돌항아리 하나가 딱 찼어. 그런 큰 돌항아리가 6개였으니까 이걸 생수통으로 따지면, 24개에서 36개나 되는 물을 채우라는 말씀이었던 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지?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어.

“이제 그걸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가져다주어라.”

하인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단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잔치를 맡은 사람이 포도즙이 된 그 물을 맛보고, 깜짝 놀라며 신랑을 불러 이렇게 말했어.

“아니, 이런 포도즙은 처음이오! 보통은 가장 좋은 포도즙을 처음에 내놓고 사람들이 좀 마신 뒤에는 평범한 걸 내놓는 법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좋은 포도즙을 왜 이제야 내놓는 거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던단다. 그것도 보통 포도즙이 아니라 모두가 감탄할 정도로 맛있는 포도즙이었지. 예수님께서서는 첫 기적을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 아마 이 장면을 본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사명을 시작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직접 보게 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고통당하시던 때였던단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약 3년 반쯤 지난 시점이었지. 마리아는 그 끔찍한 현장에 함께 있었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지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은 제자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지.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너무나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리고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지.

“네 어머니를 보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의 순간에도 어머니가 걱정되어 믿음의 제자인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거야. 그것은 아들로서의 마지막 사랑이자, 효심이었지.

그날 이후,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며 함께 지냈어.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성경에 기록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머지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 약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지. 거기에는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의 일원으로 함께했던 거야.

그날은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었는데, 하늘에서부터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며 드디어 신약 교회,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새 교회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 되었단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함께 있었지. 정말 복된 여인이었지 않나?

한편 예수님의 이 땅의 동생들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어.

“어? 이 사람, 우리랑 같이 자란 그 예수 아니야?”

“그 형제들과 누이들도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들 맞지?”

“요셉 목수의 아들이잖아. 랍비 누구에게서 특별히 배운 적도 없지 않나?”

이런 식으로 말하며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지.

요즘 말로 하자면, “출신이 어디냐, 가족이 누구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하고 따지며 무시하는 사람들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런 고향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형이나 오빠처럼만 여겼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이 있었던단다.

예수님은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형제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불렀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걱정되어 멈추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형제들을 바로 만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마 12:48-50)

시간이 흘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곤 했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서 떠나 갈릴리에서 조용히 머물고 있을 때였지. 마침 큰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오자, 동생들이 이런 말을 했지.

“형, 이렇게 숨어 있지 말고 유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한 말이었거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놀라운 변화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지. 예수님의 동생들, 특히 야고보와 유다는 마

침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에 모인 첫 교회 무리 가운데도 함께할 정도였어.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행 1:14)

훗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으며,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지.

야고보와 유다의 변화는 마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은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랄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돌이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거 같구나.

요약과 교훈

-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의 맏아들로 자라셨어요.
- 예수님과 어렸을 적부터 가깝게 자란 형제들이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가족들도 마침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적용

-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요.
-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 주신 진리의 말씀을 알아 가도록 노력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기록한 요한

열 두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제자가 누구였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요!” 하고 대답할 거야. 요한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단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말이야. 참 멋진 표현이지 않니?

요한은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렸다는구나.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는 젊은 청년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서인지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과는 달리,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일

을 감당했어.

가족들과 함께 어부였던 요한은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단다. 이 둘은 성격이 급하고 열정이 넘쳤던 형제여서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어. 어느 날,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어.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했지.

“주여, 주의 왕국에서 제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세요.”

요한과 야고보도 속마음은 어머니와 똑같았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마시게 될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이야기하신 거였지. 아직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는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

아마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답답하셨을지도 모르겠구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세상의 영광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이야.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결국엔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의 길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단다.

이런 일도 있었어. 어느 날, 요한은 자기들과 함께 다니지 않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지.

‘우리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며 배우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다니지도 않으면서 저런 일을 하지?’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단다.

그리고는 조금 으쓱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어.

“예수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저희와 함께하지 않기에 그를 막았습니다.”

어쩌면 요한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지.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우리 편과 다른 편을 나누고, 자기들만이 특별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야.

“요한아, 그를 막지 말아라.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니라.”

또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뜻을 보여 주실 때마다 따로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던 몇몇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단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서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고 그곳에서 요한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지.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은 눈처럼 밝게 변한 데다가, 옛날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거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함께 있었던 세 명 중 하나였어.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너무 마음이 괴로우셔서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요한은 그 밤,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느끼며 함께 있었던단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특별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랐는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곁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였다는 걸 봐도 알 수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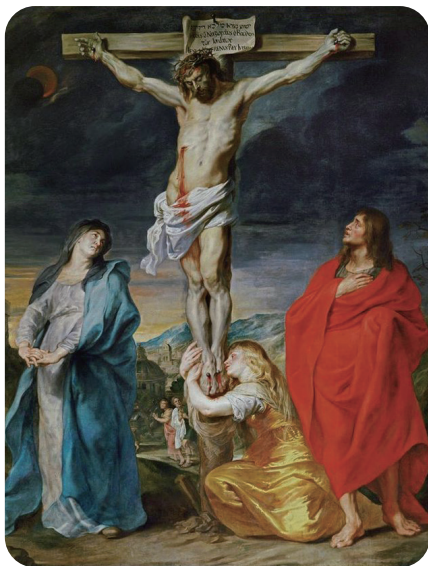
“네 어머니를 보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 뒤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놀라운 장면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단다.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오신 놀라운 사건 이후로도 베드로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힘 있게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



그리고 아주 나이가 들었을 무렵에는 밧모 섬에 유배되었어. 그 섬에서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 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이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늘 나라의 영광을 요한에게 알려 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해 두었지.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섯 권이나 되는 성경책을 썼어.

그리고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또 복음을 기록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을 많이 기록했단다. 요한은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강조했지.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 함께하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 같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참혹한 현장, 바로 그 아래에서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았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온 인



류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그 사랑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마음에 새겼을 거란다. 그래서 요한은 그 대속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닫고, 가장 뜨겁게 전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요일 4:7-8)

요약과 교훈

-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렸고,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 요한은 나중에 밧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포함해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장 많이 전한 제자였어요.

적용

-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며 살아가요.
- 친구와 가족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지내도록 해요.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위로해 줘요.



Part
5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 출신이었던 것과는 달리, 가롯 유다는 유대 지역과 가까운 도시 출신이었던다. 그래서인지 겉모습이나 말투, 행동이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더 세련되어 보였던 거 같아.

유다에 대한 성경기록들을 보면, 그가 돈을 무척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 공금을 맡아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그 돈을 몰래 훔쳤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야.

가롯 유다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드러났던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며칠 전, 유월절을 엿새 앞둔 날이었다.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 바로 며칠 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곳이기도 하지.

그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작은 옥합을 들고 나왔는데 그 안에는 아주 귀한 향기로운 기름 ‘나드’가 담겨 있었어.

마리아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는 조용히 머리를 숙였단다. 그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긴 행동이었지.

그런데 가롯 유다는 마리아에게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

“이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얘들아, 그 당시 300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거의 일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큰돈이었어. 그러니 가롯 유다의 말만 들으면, 참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성경은 가롯 유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고 알려 주고 있어. 그는 그 향유를 판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그중 일부를 빼돌리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가롯 유다의 말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사실은 욕심에서 나온 말이었다. 더구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의 일이었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를 여러 번 말씀하셨지. 그런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제자는 그 사실을 알고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어.

아마 가롯 유다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럴 바엔 기회가 될 때마다 돈이라도 챙겨야겠어.’

그즈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미워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는 조용히 그들을 찾아갔어.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저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기뻐하며 가롯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다.

그 순간부터 가롯 유다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라.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찢어 꿰뚫었도다. (딤후 6:10)

정말 그렇지 않니? 가롯 유다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결국은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되었으니 말이야. 아무리 많은 돈이 생겨도 그 돈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면 그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렴.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운명에 처하게 되자,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

자신이 한 일이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졌겠지.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은 30개를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어.

“나는 죄 없는 피를 팔았습니다. 이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정하게 말했다.

“그건 네 책임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결국 가롯 유다는 그 돈을 성전 바닥에 내던지며 나갔고 끝내 후회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도 가롯 유다는 자기 잘못을 뉘우쳤잖아. 요즘엔 잘못해 놓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도 많은데, 차라리 가롯 유다가 더 나은 거 아닐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단다. 가롯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느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어.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한 거야. 자기가 지은 죄들을 자기가 어떻게든 갚아 보려 했지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거란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지.

이런 마음을 ‘교만’이라고 한단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려는 마음, 그게 바로 교만이야.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함께 먹고 자고 걸었던 제자였거든.

하지만 그는 결국 ‘멸망의 아들’이라는 슬픈 이름으로 남게 되었지.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만이 아니었어.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잘못을 할 때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다시 바른길로 돌아와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는 분이시란다.

우리는 유다처럼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 **요약과 교훈**

-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돈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고 말았어요.
-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를 수 있는 큰 복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을 택했어요.

..... **적용**

- 잘못했을 때, 숨기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면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 돈이나 세상의 유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요.





Part
6

예수님을 받아들인 니고데모

아 주 조용했던 어느 날 밤,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신 곳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인사했지.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선생님이신 걸 압니다. 아무도 당신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인데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들의 치리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 의원쯤 되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궁금했던 거지.

‘혹시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일들이 여기 저기서 퍼져나가고 있었거든.

그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그냥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보여 주는 표적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그 표적들과 너무 닮아 있었던 거야.

그리고 니고데모에게는 풀리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도 마음속에서는 늘 뭔가 허전했던 거지.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 3:3)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지.

“다시 태어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5)



이 말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었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란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어 다니지 않느냐. 네가 바람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도 바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소리도 나는 걸 보면 분명히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으로 직접 성령님을 볼 수는 없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마음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게 된단다. 이게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가 잘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심어 주었던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셨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6)

그날 밤 니고데모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성경기록들을 보면 그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단다.

얼마 뒤 큰 명절인 장막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요 7:37-38)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지.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잡아서 끌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보낸 사람들마저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 왜 데려오지 않았느냐는 질책에 그들이 대답했지.

“그 사람처럼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엄청 화가 나서 그들을 욕박질렀어.

“너희도 속았구나! 율법도 모르는 이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그때,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용기 내어 이렇게 말했지.

“우리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합니까?”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개적인 고백은 아니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말이었지. 사람들은 니고데모에게도 막말을 퍼부었지만, 그는 점점 예수님의 편에 서게 되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예수님께서 해 주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곱씹으며 깊이 생각해 보았을 거야. 성경기록들을 다시 펴 보며, 메시아에 대한 대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겠지. 그러면서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일지도 몰라...’라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자랐을 거 같구나.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성경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였어.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기 위해, 또 다른 공회원인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거든.

니고데모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다.

그 일은 사실 아주 위험할 수도 있었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거나 도와



주면 유대인 지도자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위해 행동했어.

그리고는 아주 귀한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 등 향료를 가져와 예수님의 몸을 아마포로 정성껏 감싸서 새 무덤에 모셨지.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점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었어. 예수님과의 조용한 만남이 그 인생을 바꾸었던 거란다.

..... **요약과 교훈**

-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지도자였지만, 조용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 예수님께서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며, 거듭남과 성령님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 니고데모는 점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 갔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용기 있게 나섰어요.

..... **적용**

-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며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요.
-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요.
-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Part 7

예수님을 거부한 가야바, 빌라도, 헤롯

이번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니고데모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해 줄게. 그들의 이름은 가야바, 빌라도, 그리고 헤롯이야.

이 세 사람은 모두 당시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들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고, 빌라도는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어. 그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사분영주, 즉 한 나라를 네 지역으로 나누어 그중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지.



믿음 없는 대제사장 가야바

먼저, 가야바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가야바는 그 당시 유대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인 대제사장이었어.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단다. 오히려 그 사람은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는 장사에 깊이 얽혀 있었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는 장소가 돈을 버는 시장처럼 변해 가는 걸 보면서도, 그걸 막기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챙기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 때, 가야바는 그분을 매우 위험한 인물로 생각했지.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 버리고 싶어 했어.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몰래 와서 예수님을 넘겨 주겠다고 했을 때 가야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게 했단다.

그러고는 예수님을 심문하면서 이렇게 물었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대답하시자, 가야바는 큰 소리로 외치며 옷을 찢었지.

“신성모독이다!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단다.

용기 없는 총독 빌라도

다음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야.

빌라도는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 총독이었어.

예수님을 심문하던 빌라도는 그분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챘지.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 억지 고소에도 변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을 때였다. 그의 아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달했지.

“그분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분은 정말 의로운 분이예요. 제가 오늘 꿈에서 그분을 보았는데,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있었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고민에 빠졌어.

‘나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풀어 주면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겠지. 그럼 내 자리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밀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말았단다.

빌라도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물을 가져오게 한 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책임을 지도록 해라!”

하지만, 빌라도가 아무 책임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고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기회를 잃고 말았던 거란다.



자비 없는 로마 왕 헤롯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사분영주였단다. 사분영주란, 한 나라를 네 지역으로 나누어 그중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란 뜻이야. 예전에는 유대 땅 전체를 한 왕이 다스렸지만, 나중에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나라를 네 부분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다른 사람을 세워 다스리게 했거든.

이 헤롯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죽게 만든 사람도 바로 이 헤롯이거든.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분을 한 번쯤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단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여러 번 들려왔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는 ‘혹시 나도 그 기적을 직접 볼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어린 기대를 품고 있었지.

드디어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

‘오, 이 예수가 나를 위해 무언가 신기한 걸 보여 주면 좋겠군.’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헤롯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단다.

그분은 기적을 보여 달라는 헤롯의 말에도, 그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어. 그러자 헤롯은 금세 실망하고 말았지.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자,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화려한 옷을 입혀 웃음거리로 만든 뒤에 다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냈단다.

이 세 사람, 가야바, 빌라도, 헤롯은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가야바는 자기 자리와 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고발했고, 빌라도는 백

성들의 소리에 밀려 진리를 외면했으며, 헤롯은 단지 흥미로 예수님을 대하다가 그분을 무시하고 조롱했지.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밤늦게 몰래라도 예수님을 찾아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고, 결국에는 그분을 따르게 된 거 기억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태도는 사람마다 참 다르단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외면하고 조롱해.

이렇듯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하는 거야. 할머니는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단다.

..... 요약과 교훈

- 가야바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 권력과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해 죽이려 했어요.
-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소리에 밀려 그분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 헤롯은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대했고, 기적을 기대하다가 제 뜻대로 되지 않자 그분을 조롱하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 적용

-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고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해요.
-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요.
-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가져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삭 개오는 여리고 도시에서 일하는 세리였단다. 그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일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들이 백성들에게 원래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중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일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리들을 아주 미워하고 가까이하기 싫어했단다.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으뜸이었고 큰 부자였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 같구나.

“여리고의 삭개오? 그 사람은 못된 세리 중에서도 제일가는 욕심쟁이야!”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살던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궁금했고, 꼭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

‘이분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이 정말일까? 정말 메시아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삭개오는 군중들 사이로 뛰어들었지만, 그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 모습은 고사하고 사람들 등만 보일 뿐이었지. 다급해진 삭개오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길목에 있는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어. 나무에라도 기어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 길을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지.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올려다보시는 게 아니겠니?

“삭개오야,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고자 하노라.”

삭개오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신 예수님!

그분께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신 거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아니, 예수님이 왜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지?”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나쁜 세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삭개오는 정신없이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 그는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방문에 마음이 벅차올랐지. 아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도,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고백했어.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네 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눅 19:10)

삭개오는 그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마음의 회개가 행동으로 나타났지.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잘못된 일을 돌이키려는 진짜 믿음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해 주셨지. 삭개오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단다.

요약과 교훈

-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던 세리였는데, 그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어요.
- 삭개오는 키가 작아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그분을 기다렸어요.
-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며, 그의 회개와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적용

-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도록 해요.
-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생활과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해요.



Part 9

재산을 포기하지 못한 부자 청년

어느 날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 이 청년은 치리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있었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

겉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듯 보이던 이 청년에게도 마음속에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지. 그건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배운 종교 지식만으로는 확실한 답을 알기 어려워서, 예수님께 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했던 거란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정중히 물었어.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말속에 담긴 ‘선하다’라는 뜻을 생각해 보게 하셨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지. 그리고 동시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부른 거라면, 그 말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말이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이 가진 율법적인 생각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려고 하셨어.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을 잘 지키거라.”

그러자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

“그 모든 계명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제게 아직 부족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을 사랑하셨단다. 하지만 아직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알려 주려고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단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길로 가서 네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
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막 10:21)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아주 슬퍼하며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서 갔단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차마 그는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탐욕이라는 우상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셨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란단다. 그리

고 성경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이 청년은 결국 자신이 가진 재물을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거야. 그 청년이 슬퍼하며 떠나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는 덧붙이셨어.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
니라. (막 10:25)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기쁨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고,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슬픔 속에 돌아서고 말았지.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 청년은 자기가 이미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영원한 생명을 덤처럼 얻고 싶어 했던 거였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는 이야기란다.

요약과 교훈

-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말했지만, 마음으로는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었어요.
- 예수님께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고 하시자, 그는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적용

- 겉으로 착해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노력하고 부모님,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들을 용서받은 여인

어느 날,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단다. 성경에는 그가 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까지 부르신 걸 보면, 어느 정도 서로 알고 지냈던 거 같구나.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어.

그런데 그때, 그 도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한 여인이 조용히 그 집 안으로 들어왔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 귀한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 집의 문

을 활짝 열어 두는 경우가 많았어. 그렇게 하면 이웃이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손님이 누구인지 볼 수 있어서, 밖에서 구경하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지. 특히 바리새인처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름 있는 분을 초대했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라도 문을 닫지 않았다는구나.

그러니까 시몬의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조용히 들어올 수 있긴 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크게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어. 아마도 그녀는 사람들 눈초리에 대한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회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던 거 같아.

그 집에 들어온 여인은 예수님 뒤에 서서 조용히 슬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지. 그리고는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게 아니겠니?

이 광경을 본 시몬과 그의 친구들은 너무 놀랐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리새인, 즉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 그들에게 죄인이란, 눈길을 주기 싫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꺼려지는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그렇게 가까이 다가간 걸 보며,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어.

‘이 사람이 정말 대언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벌써 알았을 텐데... 흠, 죄인인 여자도 구별하지 못하다니...’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시몬의 마음속까지도 모두 알고 계셨지.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느니라.”

그리고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느니라.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느니라.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돈을 갚을 수 없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빚을 다 없애 주었느니라. 자, 시몬아.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겠느냐?”

시몬은 대답했어.

“제 생각엔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일 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어.

“네가 옳게 판단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빛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으셨지.

그 빛이란 바로 ‘죄’야. 사람마다 죄의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만큼,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만큼 죄를 지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이란단.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롬 3:10)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빚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 그것이 바로 ‘은혜’란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롬 3:23-24)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시몬과 그 여인을 비교하시며 말씀하셨어.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느니라. 너는 나를 반겨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니라.”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눅 7:48)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란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지.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어.

‘아니, 죄를 용서하다니? 이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눅 7:50)

예수님께서 ‘죄들의 용서’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에서 온다고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란다. 이제는 구원받고 죄들의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거야.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지만, 좋은 마음으로만 초대했던 건 아니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몬은 예수님께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거든. 어쩌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슨 흠이라도 찾아보려고, 바리새인 친구들과 함께 관찰하고 있었는지도 몰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옳다는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시몬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외면하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는 경우도 많지.



예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그 여인처럼 눈물로 회개하며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걸 꼭 기억하렴.

우리도 시몬처럼 겉모습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단다.

..... 요약과 교훈

-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진심으로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 많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와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믿음의 행동을 했어요.
-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평안히 가라고 하셨어요.

..... 적용

-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오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믿어요.
- 우리도 겉모습만 보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도록 해요.
-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구한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지금처럼 존중받지 못하던 때였다. 사람들의 수를 셀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아예 숫자에 넣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은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웠지. 마음껏 말할 수도 없고, 중요한 자리에 나서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어.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여자들을 똑같이 소중히 여기셨단다. 누구보다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여인들과도 기꺼이 대화를 나누셨지.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자들 중



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던다. 그런데 그 길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는 길로 다녔단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훨씬 빠르고 편했지만, 서로 말도 섞지 않으려 할 만큼 사이가 나빴거든.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이지.

그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마을 중 하나인 수가에 들렀어. 해가 하늘 한가운데 떠 있어서 아주 더운 낮, 바로 정오 무렵이었지.

여행길에 지치신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 곁에 잠시 앉아 쉬려고 하셨어. 그 우물은 옛날 조상 야곱이 판 우물로,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과 가축들이 물을 길어 마시던 아주 귀한 우물이었지.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홀로 우물가에 남아 있었단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걸어왔어.

햇살이 짹짹 내리쬐는 한낮에 물을 길으러 오는 건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해가 지거나 아침 일찍 시원할 때 물을 길으러 오거든.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이 시간에 나온 거였지. 그런데 웬일로,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이 다가오자 말을 건네셨지.

“나에게 마실 물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여자는 속으로 놀랐지.

‘어? 이 사람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는 여자였으니까 말이야.

여자가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네게 ‘물을 달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더더욱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지.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물을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정말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으시겠다는 건가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물려준 거예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 가축들까지 다 여기서 물을 마셨어요. 선생님께서 혹시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신가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셨어.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요 4:13-14)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무언가 울림이 생겼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과는 분명 달라.’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혹시 이분이라면 자기 인생의 힘든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가 생겼어.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세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이 더운 시간에 이 우물까지 물 길으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 주세요.”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앞에서는 손가락질받고 뒤에서는 수군거리는 걸 견디며 마음 아픈 날들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그녀에겐 영적인 의미보다도 지금 당장 힘든 삶을 바꿔 줄 물처럼 느껴졌던 거야.



‘정말 그런 물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 고된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지.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 주시기 위해,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짚기 시작하셨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거라.”

그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지.

“저는 남편이 없어요.”

이 말은 어찌면 대화를 피하려는 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기도 했어.

“네 말이 옳구나. 네게는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니, 네가 말한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너무 놀랐지.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난 삶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야. 이제 여인은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께서는 대언자이시군요. 그러면, 하나 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 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거든요. 누가 맞는 건가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의 질문을 듣고, 아주 중요한 진리를 알려 주셨어.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다정하게 설명하셨지.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 오게 되어 있느니라.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참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느니라. 장소는 중요하지 않으니라.”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이유가 뭔지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은 예배는 꼭 정해진 장소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믿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한마디를 하셨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니라.”

그 순간 이 여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설마설마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대하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자기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 말이야.

여자는 기쁨과 놀라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단다. 그 순간, 자기가 물 길으러 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는 들고 있던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어.



“여러분, 어서 와서 보세요!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시고 누구겠어요?”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꼭 만나 봐야지!’ 하고 달려왔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청했어.

“우리 마을에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예수님께서서는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시면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었다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 보니,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맞아요! 그분께서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겠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 주었어. 정말 놀라운 인생의 변화, 바로 인생 역전이이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단다.

요약과 교훈

-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 예수님께서서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적용

-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요.
-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Part
12

죽은 나사로의 부활을 믿은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사랑하셨던 두 자매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란다. 그들은 오빠 나사로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3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이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집에 종종 들르실 정도로 예수님과 이 가족은 참 가까운 사이였지.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말았어. 처음엔 가벼운 병인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병세가 나빠졌지. 자매들은 너무 걱정되었어.

‘이러다 오빠가 정말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때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계셨기 때문에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 나사로의 병을 알렸어.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сар가 병에 걸려 몹시 위독해요.”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면 바로 달려오셔서 나사로를 고쳐 주시리라 믿었지.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조금 뜻밖이었어. 예수님께서서는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에 의해 영광을 받으리라. (요 11:4)

예수님께서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가지 않으시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자매를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나사로가 위독해서 급한 상황인 거 같은데 왜 곧장 가지 않으시지? 정말 아끼시는 가족인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지.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갈 채비를 하셨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나사로가 잠자고 있는 것으로 오해했지 뭐니.

“잠들었으면 다행히 곧 나아지겠네요! 굳이 가실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잠들었다는 말은 진짜 잠이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 말씀이었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셨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그곳에 일찍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느니라. 그가 이미 죽었지만, 베다니로 지금 떠나자.”

예수님께서서는 병을 단순히 고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란다.

죽음까지도 이기는 분이시라는 걸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려고 하셨던 거야.

한편,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로 집 안은 가득 차 있었어. 어느 순간, 누군가가 말했다.

“예수님 일행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 나갔어.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는데,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 서운한 감정과 함께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오빠가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마르다는 비록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

“나사로는 다시 일어날 것이니라.”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제 오빠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활의 날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알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먼 미래를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였거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건 마르다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던 믿음의 고백이었어.

그리고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슬픔에 잠겨 있던 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으신다고 알려 주었지.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고,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그녀를 따라나섰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어.

“예수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의 눈물, 그리고 그녀를 따라온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로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지.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말했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우실까?”

“저 눈먼 사람의 눈도 뜨게 하셨는데,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서는 나сар가 묻힌 무덤 앞으로 가셨어.

그 무덤은 바위로 된 동굴이었고,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었지.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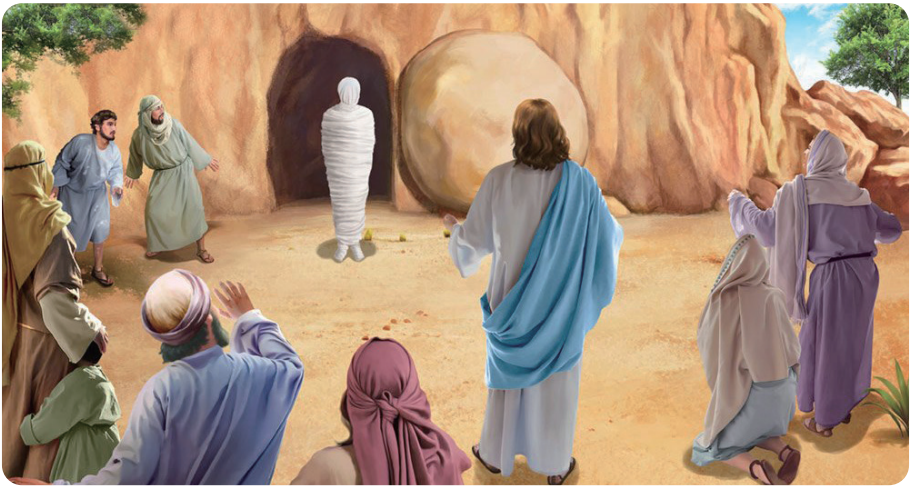
“주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심하게 날 거예요.”

“내가 네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힘을 모아 큰 돌을 굴러 내었어.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는, 아주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 외치셨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단다! 죽었던 나사로가 천으로 손발이 감긴 채, 그리고 얼굴엔 수건을 두른 채, 스르르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나?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어떤 사람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을지도 몰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해 주어라.”

그렇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단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봤지.

이 이야기는 온 유대 땅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하던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마저도 좋게 보지 않았고 그분을 더욱 위험한 사람으로 생각했지.

이 이야기를 통해 본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매였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항상 갖고 있었고, 이 땅에서도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본 산 증인들이었으니까 말이야. 우리도 이 자매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자꾸나.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란다.

요약과 교훈

-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어요.

적용

- 마르다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요.
- 슬플 때나 속상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세요.
- 부활과 천국 소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요.



Part
13

음행을 용서받고 새 삶을 얻은 여인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곳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었단다. 그 무렵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곤 했거든.

예수님께서는 평소처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 그런데 댁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져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지. 잠시 후, 서기관



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억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웠어.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그 두 사람 모두를 함께 데려와야 했어. 죄는 함께 지은 거니까 둘 다 같은 책임을 져야 했지.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여인만 데려와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야.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 자비로운 선생님이라는 평판에 상처를 입을 테고, 반대로 “그냥 용서하자.”라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로 고발하려 했던 거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궁금하여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던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곧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끈질기게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천천히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요 8:7)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다시 무언가를 땅에 쓰셨어.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장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단다.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살금살금 물러나더니 끝내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지.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을 바라보셨어.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그 여인은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지.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의 죄를 무조건 덮어 주신 게 아니었어. 그녀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신 거란다.

이 여인은 죽을 뻔한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싶구나.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바른길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 보자꾸나.

..... **요약과 교훈**

- 한 여인이 죄를 짓고 현장에서 붙잡혀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자고 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라고 하셨어요.
-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며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셨어요.

..... **적용**

-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요.
- 잘못을 했을 때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져요.
- 잘못된 일에 대해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요.





Part
14

딸의 병 고침을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 근처로 가셨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수로보니게 출신의 이방 여인도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어.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자들과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들에게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기 딸도 병이 낫도록 부탁하고 싶었던 거야. 그 여인의 딸은 악한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어서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

고 있었거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탁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 딸이 마귀에게 심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제자들은 옆에서 그 여인이 자꾸 따라오며 외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예수님께 살짝 여쭙봤지.

“예수님, 이 여자에게 한마디 해 주시고 그만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마 15:24)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거란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간청했어.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

“내 자녀들에게 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맞지 않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데다가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이 상해 돌아섰을 거 같아.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말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대답했지.

“주여,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겸손함과 큰 믿음에 놀라셨어.



“여인아! 네 믿음이 참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 순간, 그녀의 딸은 즉시 마귀에게서 벗어나 깨끗하게 회복되었단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자격조차 없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 믿음은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크고 단단했지.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란다. 우리도 때로는 상황이 어렵거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꾸나.

..... **요약과 교훈**

-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병든 딸을 위해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을 보였어요.
-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즉시 딸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 **적용**

-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끝까지 기도드려요.
- 다른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 예수님께 누구나 공화를 입을 수 있음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Part
15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유월절 날, 예루살렘 성 밖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 보통은 반란을 일으킨 자나 강도질, 살인을 저지른 중죄인에게만 내리는 아주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었지.

그날, 예수님 양쪽으로는 강도 두 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강도들은 아주 나쁜 일을 저질러 벌을 받는 중이었지. 사람들은 강도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



거리기도 했어.

“당연한 벌을 받는 거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이 조롱하기 시작했어.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아픔을 조금도 헤아리지 않았어. 오히려 냉정하고 무례한 말들을 퍼부으며 예수님을 놀렸지.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안에 짓는다더니, 너 자신부터 좀 구해 보시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구!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어?”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며 이렇게 말했단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못 구하네!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지 않겠어?”

심지어 십자가 위에 걸려 있던 죄목 명패의 ‘유대인의 왕’이란 문구를 얘기하며 조롱하기도 했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니! 왕이 이게 무슨 꼴이람!”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침 뱉음, 모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입을 여셨지. 그런데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단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눅 23:34)

이뿐만이 아니었지. 예수님 양쪽에 달린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그런 고통

속에서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모를 분노와 원망을 품고 있었어. 그는 마치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예수님께 화풀이라도 하듯 조롱하며 소리쳤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요? 그렇다면 당신 자신부터 구하시고 우리도 좀 구해 주시죠!”

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모욕받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내 자신도 알 수 없는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어.

‘아, 이분이야말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시구나.’

그는 그렇게 믿음을 향해 마음이 열린 거 같았지. 그리고는 옥살을 찢는 다른 강도를 꾸짖었어.

“너는 당연한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달라. 이분은 아무 잘못도,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야!”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이심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던 거야. 그렇지만, 그는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세요.”라고는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죄로 가득했는지 알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단다.

“예수님, 주께서 주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철저한 낮춤이 담겨 있었어.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숨을 몰아쉬시면서도 그 강도의 진심 어린 믿음과 간구를 들으시고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단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3)

할머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강도를 그저 기억해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바로 그날, 함께 낙원에 있게 해 주겠다고 직접 약속해 주셨단다. 이젠 천국을 약속받은 가장 확실한 말씀이지.

어떤 조건도, 어떤 준비도 없이 단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의지한 것만으로 그는 구원을 받았던 거야.

십자가라는 고통과 절망의 자리,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그중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어.

한 사람은 고통 중에도 마음을 굳게 닫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 짧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 비록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은 부끄러울지라도 그의 믿음의 고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되었던다.

우리는 그날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배울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끝까지 마음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린 채 안타깝게 생을 마치기도 해.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록 늦었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히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용기를 내지.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참 좋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돌아오는 자를 받아 주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이야. 그분은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단다.

그러니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해.

주님께 부르짖는 그 한마디 기도,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라는 말이 영원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자꾸나.

요약과 교훈

-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 함께 달린 두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 예수님께서서는 그 강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적용

-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과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요.
-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요.
-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Part
16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인 1월 14일 목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예표를 모두 성취하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유월절 어린양을 통해 예수님을 미리 보여 주셨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례에 따라 유월절을 위한 어린양을 1월 10일에 선택해야 했어.

이달[1월] 십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출 12:3)

예수님께서서는 1월 10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

그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는 종려나무 가지들을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할지어다, 하더라. (요 12:12-13)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일에 선택한 어린양을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저녁때까지 흠이 있는지 살펴보며 유월절을 준비했어.

같은 달 십사일까지 그것을 간직할 것이요. (출 12:6)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흘 동안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셨지만 아무도 그분에게서 어떤 흠도 발견하지 못했지.

아무도 그분께 한 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 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마 22:46)

그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저녁에 유월절을 준비하며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

… 그들이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시간이 되매 그분께서 열두 사도와 함께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눅 22:13-15)

그리고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그다음 날, 유월절인 14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다가 마침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 하지만 이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양



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구원이 이루어진 날이기도 하단다.

그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크고 깊은 슬픔에 빠졌어. 유일한 참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

막달라 마리아도 애통한 마음을 누를 수가 없었단다. 그녀는 한때 일곱 마귀에 시달리며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도,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그 곁을 지켰지.

사라진 예수님의 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서 미리 준비해 둔 바위 속 새 돌무덤에 모셨단다.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조그마한 동굴처럼 생겼고, 그 입구는 사람 힘으로는 좀처럼 움직일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둥근 돌로 막아 놓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직 해도 떠오르기 전의 새벽녘, 막달라 마리아는 미리 준비해 둔 향료와 죽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기름을 가지고 몇몇 여인들과 함께 조심조심 무덤으로 갔지. 그들은 가는 길에 걱정이 하나 있었어.

“그 돌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우리가 어떻게 옮기지?”

무덤의 돌문은 아주 크고 무거워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밀어낼 수 없을 거 같았거든. 그런데 믿기 힘들게도 무덤의 돌문이 이미 굴러져 있었지.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녀들은 너무 놀랐어.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땅이 크게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지진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서 생긴 거였거든. 번개처럼

밝은 얼굴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옷을 입고 있던 그 천사는 무덤 입구의 큰 돌문을 굴러 내고, 아주 당당하게 그 돌 위에 앉았지. 그 모습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 벌벌 떨다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

여하튼 여인들이 큰 돌문이 옮겨진 입구로 들어가 조심조심 안을 살펴보니, 그곳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어.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의 몸을 누가 가져간 걸까?’

그녀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무덤 안에서 천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에 없느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라.”

그녀들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 많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눅 24:7)

여인들은 곧장 달려가 열한 명의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무덤에 갔는데, 몸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들려준 그 놀라운 소식을 쉽게 믿지 못했단다.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처음에는 여자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처럼 여겼고, 믿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혹시 정말일지도 모른



다는 마음에 두 사람은 곧장 무덤을 향해 달려갔단다. 숨을 헐떡이며 무덤에 도착한 베드로와 요한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

그곳에는 정말 예수님의 몸은 없었고, 예수님의 몸을 감싸던 하얀 아마포 수의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도 따로 개켜져 있었지.

무덤 안은 조용했는데 죽음의 기운이 아니라 정돈된 평안함이 느껴졌단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걸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두 사람의 마음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단 자기들의 거처로 돌아갔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서는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때까지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다

다른 제자들은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지. 그녀는 무덤 곁에 조용히 앉아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거든.

마리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몸을 숙여 다시 한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게 되었단다!

예수님의 몸이 놓여 있었던 그 자리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거야. 한 천사는 머리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 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 그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며 물었어.

“여자여, 어째서 그렇게 슬피 우느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옮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녀는 아직도 너무 슬퍼서 무덤가에서 몸을 돌렸는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계시는 걸 보게 된 거야!
 하지만 마리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어. 아마 눈물
 이 너무 많이 나서 흐릿하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을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정원지기인 줄 알았지.

마리아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어.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기셨다면 어디에 모셨는지 말씀해 주세
 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단다.

“마리아야.”

이 짧은 한마디에 마리아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단번에 알아챘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 준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
 야. 마리아는 너무 놀라고 기뻐서 눈이 번쩍 뜨였어.

“랍보니!”

이 말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야.

그 감격스러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아나신 몸을 가장 먼
 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 주신 거란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 20:17)

이렇게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직접 본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간절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마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하자.

요약과 교훈

-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무덤에 묻히실 때도, 두려움 없이 끝까지 곁을 지켰어요.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적용

-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드려요.
-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지녀요.
-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Part
17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베드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마치실 무렵,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였어. 예수님께서 문득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레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대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물으셨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했단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

정말 멋진 고백이지 않니?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귀한 약속을 주셨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마 16:18)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시고 어떤 것에도 움직여지지 않는 단단한 돌, 즉 반석이기 때문에 지옥의 문들일지라도 절대 이기지 못한 다는 걸 알려 주신 거지.

예수님을 따라 나선 어부

그럼, 베드로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그 이야기는 그의 동생 안드레부터 시작돼. 안드레는 원래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었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이 말씀을 들은 안드레는 곧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달려가 이렇게 말했어.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지.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처

음 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게바라고 불릴 것이니라.”

‘게바’는 아람어로는 ‘돌’이라는 뜻이고, 그리스어로는 ‘베드로’이거든.

이름까지 바꿔 주신 걸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얼마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겠지?

베드로는 처음 교회가 세워진 뒤, 곧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로서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단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메시아, 곧 이스라엘을 힘센 나라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줄 분이라고만 생각했었어. 베드로뿐 아니라 열두 제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분의 왕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를 두고 다툰 적도 있었거든.

하지만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뒤, 고기를 잡아 보라고 하셨어.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은 자기 전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단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거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단다.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눅 5:8)

바로 이때,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걸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라나섰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베드로는 다소 급하고 직선적인 성격이기도 했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가로막으며 예수님을 질책하기도 했었거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누구보다 강하게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외쳤던 사람이기도 하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이든 죽는 곳이든 어디라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

하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는 크나큰 두려움에 온몸이 덜덜 떨렸단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실 때도 베드로는 거리를 둔 채 멀찍이 따라갔지.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베드로도 조심조심 따라 들어갔어. 그곳에는 불을 피워 놓고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베드로도 몸을 녹이기 위해 그 불 옆에 슬쩍 앉았을 때였어. 누군가 베드로를 뚫어지게 바라봤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 아닌가요?”

베드로는 깜짝 놀라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나섰어.

“당신도 분명히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번에도 말했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누군가 의심했지.

“당신 말투를 들어 보니, 갈릴리 사람이네요. 당신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맞잖아요?”

베드로는 그만 화를 내고 말았지.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절대로 몰라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단다.

꼬끼오!

그 닭의 울음소리는 마치 베드로의 가슴을 쿵! 하고 내리치는 듯했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

“오늘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세 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순간 자기 입으로 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너무 후회되고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 비통하게 울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당부

베드로는 예수님께 품고 있던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네.”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도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어.

그들이 찾아간 곳은 갈릴리 디베랴 바다였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단다.

그날 밤, 베드로와 제자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밤새 고생한 끝에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바닷가로 돌아오려는 그 순간,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지.

그 사람이 제자들에게 소리쳐 물었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했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보아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니라.”

잠시 후, 그들은 너무 놀랐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잡혔거든. 제자들은 깜짝 놀라 서로 쳐다보기만 했지.

그때 뭔가를 깨달은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어.

“저분은 예수님이신 게 틀림없어!”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얼른 겹옷을 걸쳐 입고 물속으로 퐁당 뛰어들었지. 그는 힘차게 헤엄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향했어.

다른 제자들도 배를 따라 육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숯불 위에 물고기와 빵을 구우며 지친 제자들을 기다리시고 있었지.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말씀 없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시고 있었어.

그 누구도 “누구십니까?” 하고 묻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속 깊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
 눈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말이야.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바라보셨어.
 “와서 먹으라.”
 모두가 말없이 식사를 마친 뒤,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를 부르셨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마음을 다해 대답했단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양들을 먹이라. (요 21:15)

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마음을 다해 대답했단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양들을 먹이라. (요 21:16)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베드로가 걱정하며 대답했단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걸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고백할 기회를 주신 거란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양들을 먹이라. (요 21:17)

그것은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명이었던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슬픈 기억은, 이제 사랑의 고백과 회복으로 덮이게 되었어. 그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조용히 말씀해 주셨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내밀 것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게 띠를 띠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때 하신 말씀은 큰 의미를 담고 있었어.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를 미리 알려 주신 것이었거든. 즉,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될 거라는 뜻이었지.

하지만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단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이제는 담대하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보자꾸나.

요약과 교훈

-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제자였어요.
-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무서워서 세 번이나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적용

- 주일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세요.
-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Part
18

오순절 날 성령님의 침례로 시작된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단다. 그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살아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거라. 며칠이 지나면 너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다렸단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모두 합쳐서 약 120명쯤 되었지. 그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어.

그렇게 열흘이 지난 날은 마침 오순절이었지.

오순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한 뒤 하나님께 익은 열매를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었어.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서 7주를 세고 그다음 날에 이 명절을 지켰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불렸단다. 이날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 뿐만 아니라, 아주 먼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왔단다.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퍼져 살게 되면서 자라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왔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오순절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

그날 아침,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이 있던 집 안을 가득 채웠지. 그리고 놀랍게도 마치 불꽃이 갈라지는 것 같은 무언가가 제자들 머리 위에 내려앉았단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셨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갑자기 전에는 해 본 적도 없는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이었지!

밖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

“어? 저 사람들이 우리 나라 말로 말하고 있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웃기도 했지.

“아니 저 사람들, 술에 취한 거 같은데? 하하.”

그때 베드로가 일어섰어.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

“여러분, 지금은 낮인데 우리가 술에 취했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본 일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일은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내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박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대답했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며 복음을 전했단다. 이제 베드로는 두려워서 숨었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어.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있게 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거야.

그날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는지 아니? 무려 3천 명이나 되었다는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단다.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빵을 떼며 기도했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서로 사랑했지.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지.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기 시작했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예수님을 믿

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졌거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가며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까지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도 바로 그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와 이어지는 놀라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셈이지. 참 감격스럽고 기쁘지 않니?

그리고 성령님은 그때만 잠깐 계셨던 분이 아니란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 함께하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조용히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야. 그러니 우리도 항상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해.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다는 걸 잊지 말렴. 이와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꾸나.

..... **요약과 교훈**

-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오순절 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3천 명이나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 **적용**

-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고 말씀대로 생활해요.
- 교회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고 돕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요.
-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Part
19

걸지 못했던 사람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늘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다. 그날도 그들은 오후 세 시 기도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지.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곳 앞에는 매일같이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었고, 늘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데려다주면 거기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지.

그날도 그는 ‘혹시 오늘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단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오면서 눈이 마주친 그는 뭔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두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지.

베드로가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왔어.

“우리를 보라.”

그 남자는 더욱 기대하며 눈을 크게 떴지.

“은이나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다른 걸 네게 주겠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 번쩍! 일으켰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별떡 일어난 거야!

그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지! 그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단다. 뛰고, 걷고, 또 찬양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지.

“어? 저 사람은..., 매일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잖아!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는 거야?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 주위로 몰려들자, 베드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걸로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서 돌려, 진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향하도록 분명하게 말했지.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며,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한 것이니라.”

베드로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리게 했단다. 왜냐하면 그들 가



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었기 때문이거든.

그런 그들에게도 베드로는 소망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 죄들이 깨끗이 씻기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들을 주실 것이니라.”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
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
느니라. (행 3:26)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사람들이 하
나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단다. 그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남자들만 해
도 무려 5천 명쯤 되었다는구나.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사랑과 용서, 그리고 능력을 깨닫게 해 주
셨다는 뜻이거든.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보여
주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제자들

하지만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도 있었지. 바로 그 당시 유대인
의 지도자들이었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
이었지. 이제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심지어 그분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까지 낫게 되었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했지. 그래서 그들
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어.

그리고 그다음 날, 그 지역의 치리자들과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 등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했지.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했느냐?”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어.

“이 병든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찢릴 만한 말들을 이어서 했지.

“당신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단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단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너무도 당당하고 똑 부러지게 말하니까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

‘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구나!’

게다가 더 이상한 점은, 그들 옆에 실제로 병에서 나은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였지.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멀쩡히 일어나 걷고 있으니 아무도 그 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거든.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하며 이렇게 말했지.

“이건 진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는걸...”

“예루살렘 사람 모두가 다 알게 되었으니 감출 수도 없구나.”

“이 일로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입지가 약해질 테니,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는 말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경고합시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렀어.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

“당신들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을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 주었어. 모든 백성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함부로 벌 줄 수가 없었거든.

그 뒤에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제자들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옛날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보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세요. 주의 손을 내미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단단해졌단다.

그 이후로도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는 놀라운 기적도 베풀었어.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수는 날마다 늘어났지.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침상이나 자리에 누인 채로 길거리에 데리고 나왔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닿기만 해도 병이 낫지 않을까 하고 기대할 정도였거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크게 임해 있

있지.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 도시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과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낫게 되었다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간절히 부르면, 마음이 아플 때는 위로를 받게 되고, 두려울 때는 용기를 얻게 되며, 힘든 일을 만났을 때는 이겨 낼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단다.

“하나님, 저도 주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저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견지 못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며,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자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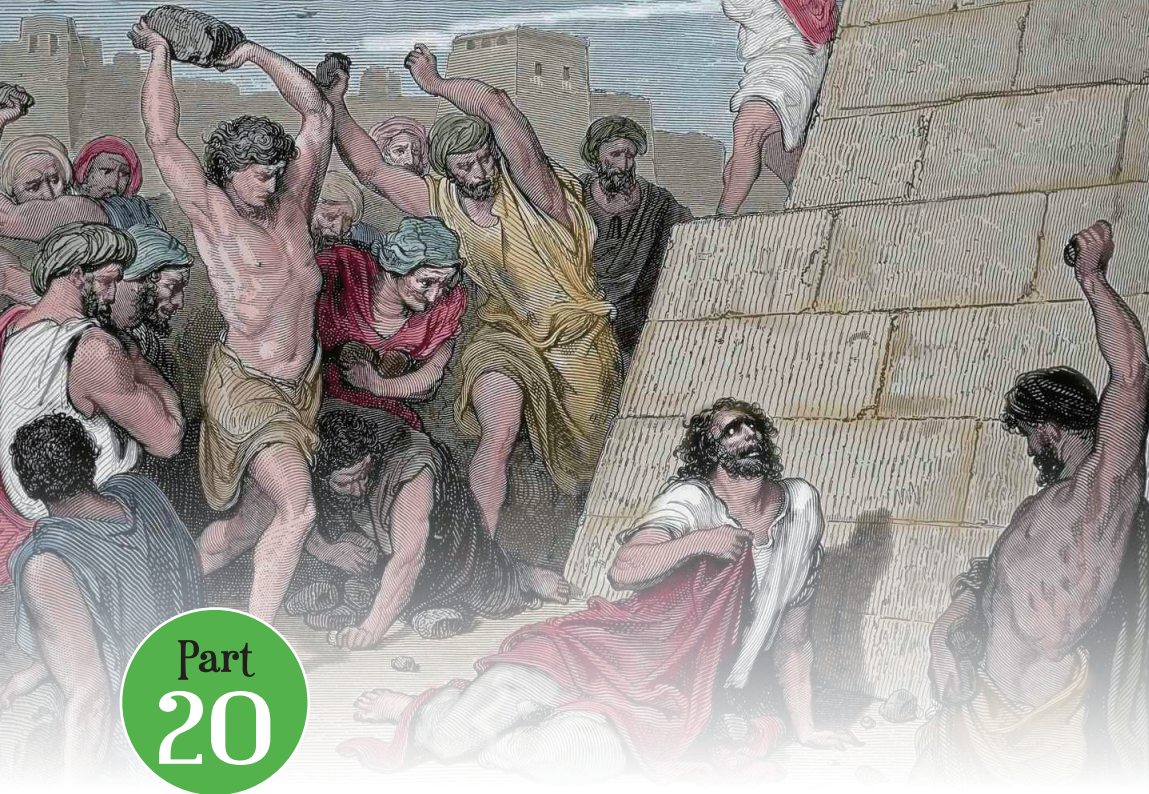
요약과 교훈

-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 앞에서 견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어요.
- 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어요.
-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적용

-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해요.
-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 줘요.
- 하나님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용기를 내요.





신약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음식을 나누는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지. 스테반은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로우며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할 일꾼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혔단다.

그는 맡은 일을 신실하게 잘해서 음식을 나눌 때도 사랑과 기쁨으로 섬겼고, 틈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

이었어. 게다가 그는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지역 사람들의 말과 생각, 그리고 생활 방식에도 익숙했어. 그러니까 스테반은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지.

어디에서나 종종 그렇듯이, 그런 스테반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일부 유대인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을 싫어해서 그와 논쟁을 벌였지만, 번번이 이기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스테반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기록과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반박할 수 없었거든.

결국 그들은 나쁜 꾀를 내어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

“스테반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이에 그치지 않고, 스테반이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했다는 거짓말로 사람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을 선동했고, 결국 스테반은 공회 앞에 끌려가게 되었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노려보았지만, 스테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의 얼굴처럼 밝게 빛났다는구나. 그 모습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지.

대제사장이 스테반에게 물었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냐?”

스테반은 담대하게 대답했지.

“당신들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조상들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신들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들을 당신네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오실 그분, 즉 의로우신 예수님을 미리 말해 주었는데도 그분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



법도 손에 받기만 했을 뿐,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서 이를 갈았어. 하지만 스테반은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쁜 얼굴로 외쳤어.

“보십시오!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귀를 막고 더 이상 듣지 않으려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스테반에게 달려들었어!

그들은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을 던지기 시작했지.

그때 증인들은 겔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젊은이에게 맡겨 두었어. 이 사울은 이때 당시에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지만, 나중에 놀라운 예수님의 일꾼이 된단다.

스테반은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

“하나님,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 주세요!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아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스테반은 마지막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잠이 들었단다. 그 잠은 하나님 곁으로 가는 참된 안식이었어.

복음의 열매를 맺은 거룩한 죽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은 그날 이후,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큰 핍박이 시작되었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곧 초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거든.

그중에서도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교회를 가장 심하게 괴롭혔단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끌어내어 감옥에 갇히도록 했지. 믿는 사람들은 사울이 너무 무서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치기도 했어.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베니게와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 같은 멀리 떨어진 도시들까지도 갔었다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

그전에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야기되던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는 멀리멀리 퍼져 나가기 시작한 거지.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는지, 또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구나.

큰 도시 중 하나인 안디옥에는 이방인, 즉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리고 안디옥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에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단다. 바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손에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지. 고난을 통해 복음은 더 넓은 곳으로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느끼기엔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사용해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이란다. 스테반의 죽음도, 교회에 닥친 핍박도, 결국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지.

그러니, 혹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단다. 우리도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제가 이걸 잘 이겨 낼 용기를 주세요.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더 강해지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아픔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하게 이뤄 주신단다.

..... **요약과 교훈**

- 스테반은 초대 교회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 스테반은 거짓 고발 때문에 공회에 끌려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며 용서의 기도로 생을 마감했어요.
- 스테반의 순교 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로 인해 복음은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갔어요.

..... **적용**

-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요.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용기를 내요.
- 스테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Part
21

하나님께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거라. 며칠이 지나면 너희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오순절 날, 제자들이 여느 때와 같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지.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어.

그들은 모두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단다.

그래서 가진 재산을 혼자만 쓰지 않고, 기쁘게 함께 나누며 지냈지.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기꺼이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 돈을 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어. 이렇게 모두가 서로 도우며 지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부족한 사람이 없었다는구나.

그중에는 요세라는 키프로스라는 섬 출신의 레위 사람이 있었어.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따뜻하고 힘이 나는 이름이었지. 바나바도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오고, 사도들의 발 앞에 겸손히 두었어. 그는 가진 재산을 혼자서만 쓰려고 하지 않았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걸 기쁨으로 여겼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다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단다. 이 사람들의 행동이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자고 강요하는 체제였던 건 절대로 아니었거든. 그들은 단지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야.

그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을 거 같구나.

“그럼 우리도 지금 그 사람들처럼 다 같이 모여서 집도 팔고 돈도 다 모아 같이 살아도 되나요?”

대답을 먼저 하자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재산을 한군데 모아서 다 같이 생활하는 건 옳지 않단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된 아주 특별한 시기였고, 사도들이 직접 교회를 이끌던 시절이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지.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실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 함께 모여 있었거든. 그런데 성도 수가 많아지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이다 보니 먹고살 일이 점점 어려워졌지. 그래서 누군가는

땅이나 집을 팔아 그 돈을 가져왔고, 사도들이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거야. 즉, 초대 교회의 특수한 변천기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걸 이해해야 해.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초대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강요한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적용한 잘못된 방식일 뿐이야. 사람들을 억지로 묶어 두고 무언가를 내놓게 하거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자원하여 돕는 삶을 살아야 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진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걸 명심하렴.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모임에서 “우리끼리 모든 걸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해요.”라고 말하거나 강요한다면, 그곳에서는 빨리 빠져나와야 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리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 어딘가에 얽매이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인 부부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 지금 들려줄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한 일이란단다.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

어느 날, 이 부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 일부를 팔았어. 당시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땅이나 집을 팔면 그 돈 전부를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의논한 후에 땅을 팔아 생긴 돈의 얼마를 남기기로 했었어.

“여보, 우리가 땅을 판 돈 중에서 조금은 남겨 두고 나머지만 가져갑시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부만 가지고 와서,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에게 내놓았던 거지.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바라보며 말했어.



“아나니아야, 왜 사탄에게 마음을 내주었느냐? 왜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느냐? 그 땅이 네 것일 때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 땅을 팔아도 그 땅값을 네 마음대로 써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네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지금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모두가 크게 두려워했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젊은이들이 일어나 아나니아의 몸을 싸서 들고 나가 땅에 묻었어.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세 시간쯤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에 들어왔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어.

“삽비라야, 그 땅을 정말 그 값에 팔았느냐?”

그러자 삽비라는 아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

“네, 맞습니다. 그 가격에 팔았어요.”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지. 남편과 함께 감추기로 한 거짓말이었으니까 말이야. 그러자 베드로가 엄숙하게 말했어.

“왜 너희들은 서로 짜고서 주의 영, 곧 성령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도착했으니 그들이 곧 너도 들고 나가리라.”

그 말을 들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잠시 뒤, 젊은이들이 다시 들어왔다가 삽비라가 죽은 걸 보고는 그녀도 싸서 남편 곁에 묻어 주었지.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지.

그리고 교회는 그 사건을 통해 더욱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갔단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더 진지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는 더 순결하고 뜨거워졌다고 해. 그리고 그런 교회에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땅을 판 뒤 일부만 가져왔기 때문에 혹은 돈을 조금 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게 아니었다. 정직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 그것이 큰 죄였지.

그런데, 그들은 어쩌다 그런 큰 죄를 짓게 되었을까?

성경에 보면 사탄, 즉 마귀가 아나니아의 마음에 거짓을 넣은 거라고 베드로가 말했어. 예수님께서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요 8:44)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다른 생각을 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가득하게 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단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든 일상생활을 할 때든,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단다.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엡 6:11)

다시 말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속이려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바나바처럼 존경받고 싶었던 거지.

그게 바로 교만이란단다. 교만은 아주 무서운 죄야.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 즉 사탄도 교만 때문에 망했고, 아담과 하와도 교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온다고 할 수 있단다.

이 부부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헌금을 많이 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바란 거였지. 그러면서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었던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 거야. 이젠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징계와 심판이었던단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란단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 안에도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지.

‘나는 지금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나?’

‘내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일치하고 있나?’

예수님께서는 위선, 곧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고 (마 15:8)

우리의 기도, 찬송, 심지어 설교를 듣는 모습까지도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와야 진짜 예배란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동지를 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인지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전 3:16)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분이란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살아가야 해.
작은 거짓말도 그냥 넘기지 말고,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마음도 행동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아가자꾸나.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란다.

요약과 교훈

-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자발적으로 가진 재산을 나누었고, 그
중 바나바는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드렸어요.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진 땅의 일부를 팔았고, 그 값에서 일부만 드리고도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속이려 했고, 하나님의 영광
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에 징계와 심판을 받았어요.

적용

-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언제나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도
록 해요.
- 어려운 친구가 있다면 마음을 다해 도와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
으로 대해요.





Part
22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회심한 바울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삼았던 열두 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 사도가 되었단다. 바울 스스로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사람이라고 겸손히 소개했지만, 그는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부르심과 사명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땅,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의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학문과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된 도시였어. 바울의 가족은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에 당시에 꽤 좋은 형편에서 자랐던 거 같아.

게다가 바울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당시에 꽤 유명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에게 배웠다는구나. 그러다 보니 율법과 종교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도 강했어.

그리고 그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거란다.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건 스테반이라는 믿음 좋은 청년이 돌에 맞아 순교하던 장면이야. 바울은 그 일을 옳다고 여겼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뜻을 맡아 줄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 그 이후로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열심을 냈단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마스쿠스라는 도시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했었지.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놀라운 일을 겪게 된단다. 날이 밝은 정오쯤 갑자기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바울을 비추었고, 그 빛에 놀려 땅에 엎드려진 바울은 한 음성을 듣게 되었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어.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음성이 대답했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고, 일행의 도움을 받아 다마스쿠스로 들어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단다.

그 무렵,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

“아나니아야, 일어나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에게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사람 이니라.”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지. 왜냐하면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었거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니, 아나니아는 즉시 순종해서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었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올 때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네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바울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며 다시 시력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은 후,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했지.

이제 바울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야.

바울은 다마스쿠스의 회당에서 담대하게 외쳤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지.

“아니,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유대인들은 아주 화가 났어. 함께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이던 바울이 그들 편에 섰으니 말이야.

어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웠고, 이 소문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몰래 밤에 바구니에 실려 성벽을 내려와 도망쳐야 했단다. 이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만 했지.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곳곳하게 전했어. 예루살렘에서는 여

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두려워하거나 의심했지만,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지.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단다.

많은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회는 시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였어.

안디옥 교회는 원래 스테반의 순교 이후,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세운 곳이었단다.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도우며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었지.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도록 큰 힘을 보태었어.

날이 갈수록 교회가 점점 커지고 성도들도 많아지자,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지경이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래,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오자!”

그때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바나바는 바울을 직접 찾아가 안디옥으로 데려왔단다. 그리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일 년 반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키워 주었지.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아주 크게 성장했고, 이곳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 다른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어. 이렇게 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세 번에 걸쳐 긴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지. 처음





에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을 돌며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마케도니아, 다시 말해 지금의 유럽 땅까지 나아갔지. 그렇게 바울은 그 당시로 보면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곳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찾아갔단다.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열네 편이나 되는 서신서를 기록한 성경 기록자이기도 했단다.

신약 성경 중에서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와 데살로니가후서, 디모테전서와 디모테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 모두 바울이 기록했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가 율법에 아주 정통했던 배경이 큰 도움이 되었어.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거란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와 제도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지. 이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 덕분에 공회와 총

독,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

그렇지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건 따로 있었지. 그건 바로,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은혜였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완전히 바뀌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삶이 끝날 때까지 절대 잊지 않았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 2:20)

요약과 교훈

-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어요.
- 바울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했어요.
- 바울은 많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고,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를 남겼어요.

적용

-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요.
- 바울처럼 용기를 내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세 번에 걸쳐 아주 긴 선교 여행을 떠났단다. 바울은 먼 곳도 마다하지 않고 여러 곳을 쉴 새 없이 다녔어.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그렇게 다니며 바울은 여러 곳에 교회도 세웠단다.

여행하는 동안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어. 배가 파도에 뒤집힐 뻔한 적도 있었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 하지만 바울은 언제나 예수님을 믿으며 참고 견뎠단다.

그는 아픈 사람을 고쳐 주는 기적도 행했고,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 주려고 편지들, 즉 성경의 여러 서신서도 썼어.

또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특별한 계시, 곧 예수님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 주시기도 했지.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강력하게 전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을 지키다 순교했던 정말 큰 사람이었단다. 이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귀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자, 그럼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볼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던 첫 번째 선교 여행부터 들려줄게.

이 선교 여행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단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특별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보냈어.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총독도 있었단다.

그들이 바보라는 도시에 갔을 때였지.

거기서 바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단다. 그는 마법사였고 거짓 대언자였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이끌었지.

이 마법사는 로마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어. 총독은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직접 불렀지.

그러자 마법사가 나서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꾀방을 놓았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끊고, 총독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애썼지.

그때 바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마법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간사함과 악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아! 마귀의 영이 가득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바른길을 자꾸 비틀고 있구나. 이제 주님의 손이 너 위에 있을 것이고, 너는 당분간 눈이 멀어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바울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로 마법사의 눈앞에 안개 같은 어둠이 덮여 시력을 잃고 말았어. 그는 앞이 보이지 않아 비틀거리며, 누군가 손을 잡아 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거든.

이 광경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매우 놀랐지.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았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고, 예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일화이지.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진리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하신단다.

바나바와 함께한 사역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건너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단다. 이름은 같지만, 앞서 말한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란다. 그곳에서도 두 사람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기뻐한 건 아니었어.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고 시기하여 사람들을 선동했고 결국 두 사람은 그 도시에서 쫓겨나고 말았지.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러 떠났어.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노라.”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단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지길 원하신다는 뜻이었거든.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갔단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열심히 듣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지. 그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앉아 있기만 했어.

그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던 바울은, 그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큰 소리로 말했지.

“네 발로 똑바로 서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동안 한 번도 걸어 본 적 없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했단다! 아니, 걷는 것을 넘어서 뛰기까지 했어!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지 뭐니.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어!”

이렇게 말하며 그들에게 경배하려고 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깜짝 놀라 옷을 찢고 외쳤어.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일 뿐이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러 온 것이오! 살아 계신 하나님만을 믿으시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겨우 경배를 멈추었지.

그런데 얼마 후, 다른 도시에서 온 나쁜 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려고 했어.

결국 바울은 그들에 의해 끌려 나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크게 다쳐 땅에 쓰러졌고,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흩어져 가 버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 주셨고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다음 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 더베라는 도시로 갔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지.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이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어.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안디옥 같은 곳들을 다시 방문하며 새로 믿게 된 형제자매들을 격려했거든.

“예수님을 믿는 길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서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해 주었어.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해 도왔단다.

그렇게 오랜 여정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곳의 성도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했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 여행 중에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했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올렸지.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된 소중한 여정이었던다.

요약과 교훈

- 복음을 방해하던 마법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동안 시력을 잃었고, 총독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 바울은 병든 사람을 고쳐 주는 기적을 행했고, 많은 도시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해 주었어요.

적용

-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해요.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겨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Part
24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어떻겠소?”

바나바도 그 말에 동의했지만, 한 가지 의견 차이가 있었어. 바나바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고 싶어 했거든. 그런데 바울은 마가가 전에 밤빌리아에서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갔던 일을 떠올리며,

이번엔 함께 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랐던 나머지 심하게 다투었다.

그리고는 아쉽게도 각자 다른 길을 가기로 했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났고, 바울은 실라라는 동역자를 선택해서 걸어서 선교 여행을 떠났단다. 성도들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여행하길 기도하며 보내 주었지.

바울과 실라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며, 곳곳의 교회들을 찾아가 믿는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도록 격려하고 가르쳤어.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단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따르며 제 역할을 신실하게 해내는 거지.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실라도 모두 주님의 일을 위해 충실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말이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을 때였단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 디모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청년이었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의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는구나.

“디모데는 정말 착하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야!”

디모데의 바른 모습을 보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들의 문화에 맞추어 할례를 받게 했단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이방인이라고 문제 삼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되었거든.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명령들을 전달해 주고 잘 지키도록 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들은 믿음 면에서 더 강해져 갔고, 믿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단다.

그 후에도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여행을 계속했단다. 바울과 동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던 날이었어.

그날 밤, 바울은 아주 특별한 환상을 봤는데 꿈속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했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마케도니아 땅으로 보내시는 것임을 깨달았어.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그곳으로 갈 준비를 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했거든.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어.

바다를 건너 사모드라게 섬에 들렀다가 그다음 날 네아폴리스라는 항구에 도착했지. 그리고 다시 걸어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인 빌립보로 들어갔어. 그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했단다.

바울과 동료들은 며칠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어.

그러던 어느 안식일 날, 사람들 몇이 강가에 모여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그래서 그들도 그곳으로 가 보았어. 그곳에는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그중에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주색 옷감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 아주 값지고 귀한 옷감이라서 부자들만 입을 수 있었지.

루디아는 똑똑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히 살아가는 여인이었는데, 무엇보다도 그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구나.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고, 예수님의 복음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 믿었어.

이때 루디아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지. 나중에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된 장소가 되었고, 그녀는 예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되었단다.

점 치는 소녀를 만난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어. 어느 날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을 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소녀는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었지.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 주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소리치자 바울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그 소녀가 걱정되었어. 그래서 바울은 소녀 안에 있던 나쁜 영을 향해 명령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정말로 그 순간 나쁜 영이 소녀에게서 나가 버렸지 뭐니! 그런데 이 일을 지켜보던 주인들은 깜짝 놀랐어. 소녀에게



서 나쁜 영이 떠나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돈벌이가 끊겨 버리게 되거든. 엄청 화가 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내 광장으로 끌고 갔어!

그리고는 높은 관리들에게 고소했지.

“이 유대인들이 우리 도시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풍습들을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자 당황한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채찍으로 마구 때리라고 명령했어. 그리고는 감옥에 던져 넣었지.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가장 안쪽 감방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단단한 차꼬까지 채워 버렸단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어. 오히려 한 밤중에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단다. 다른 죄수들도 그 노래를 듣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 탓에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도 모두 열려 버렸지.

이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까지 풀려 버렸어.

간수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 광경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

“이보시오, 멈추시오!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 그대로 여기에 있소!”

간수는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달려 들어갔지.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어.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당신의 집안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에 간수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 주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았단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 주었고, 그들 모두는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믿는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찼다는구나.

그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

빌립보의 높은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 주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행정관과 간수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

“우리는 로마 시민이요.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가두었으면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가라 하시오.”

로마 시민을 제대로 된 재판도 없이 때리고 가둔 것은 큰 잘못이었기 때문에 행정관들은 당황하며 급히 사과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로마 시민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부디 조용히 도시를 떠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라는 도시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는 큰 도시에 도착했단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회당이 있었어. 바울은 언제나처럼 회당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바울은 성경을 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 몇몇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로 했어.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인들도 꽤 많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구나.



하지만,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몇몇은 바울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걸 보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나쁜 사람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떠들며 도시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지. 그리고는 이 틈을 타 바울과 실라를 붙잡으려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덮쳤지.

하지만 정작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야손과 그와 함께하던 형제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 앞에 세웠단다.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자들이 여기에도 왔었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자기 집에 들였고요,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의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과 도시 관리들은 깜짝 놀랐고, 결국은 야손과 다른 형제들에게 벌금을 내게 한 후에야 풀어 주었던단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라는 곳으로 피신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착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었지. 그 사람들은 마음을 온전히 열고 말씀을 들었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맞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았다는구나.

바울은 이곳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았고 이를 피해서 아테네로 갔단다.

미신에 빠진 아테네 사람들

아테네는 옛날부터 철학자들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여기저기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너무 많았어. 이 모습을 본 바울은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지.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이야기하고, 시장에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

당시 아테네에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는 이렇게 수군댔어.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이방의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그들의 이런 반응은 바울이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 곧 마르스 언덕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토론을 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 재판 하던 자리이기도 했지.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바울이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잘못된 거라고 말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전했기 때문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어.

“당신이 전하는 이 새로운 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걸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궁금해했지.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신을 섬기며 종교심이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제단들 중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적힌 제단도 있더군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채 섬기는 바로 그분, 참되신 하나님을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 돌로 만든 우상 속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숨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살아 움직이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분이 정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보자.”라며 그저 그런 종교의 하나로 여기기도 했지.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는데 그중에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는 여인도 있었다는구나.

고린도에서의 사역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단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어. 이 부부는 원래 로마에 살다가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고린도로 온 사람들이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지내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갔어. 그 당시에는 사도들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단다. 마침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더욱 힘을 얻어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지.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모독을 일삼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단다.

“여러분의 피가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갈 겁니다! 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회당 옆에 사는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 복음을 전했어. 그 집은 회당과 아주 가까웠는데, 놀랍게도 그 회당의 우두머리 지도자였던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단다!

당시 회당의 지도자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게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거든. 게다가 자기들의 권위와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지.

그러나 고린도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단다.

그렇게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던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니라. 이 도시에 복음을 받아들일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 힘을 얻은 바울은 일 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지.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바울을 싫어한 유대인들이 그를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했어.

“이 사람이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합니다!”

하지만 총독 갈리오는 그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

“이건 너희 유대인들끼리의 문제니까 알아서 해라. 나는 그런 일에 관심 없다!”

그렇게 바울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총독은 유대인들을 쫓아냈어.



사람들은 오히려 회당의 지도자였던 소스데네를 붙잡고 때렸지만, 총독은 그 일에도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단다.

그 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시리아로 향했어. 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러 유대인들을 만났지. 그들은 그곳에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지.

“내가 오순절을 꼭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하니 지금은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오리라.”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 예루살렘 교회에 들른 뒤,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마쳤단다.

..... 요약과 교훈

-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뒤, 실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 나중 에 디모데도 함께하게 되었어요.
-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등 여러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 고린도에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을 격려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 적용

-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해요.
- 어려운 일이 닥쳐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요.
- 낯선 곳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한 바울처럼,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용기 있게 전해 보아요.



Part
25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

아 볼로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바울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역을 차례차례 다녔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힘을 북돋아 준 후, 에베소에 도착했단다.

그곳에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물었지.

“너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너희는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



“저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었으며,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음을 알려 주었어.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단다. 이들은 모두 열두 명쯤 되었지.

바울은 그 후 세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담대하게 가르쳤어. 하지만 여기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했지.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매일 가르쳤어. 이 일은 2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덕분에 아시아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단다.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셨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갔지.

불태워진 마법사들의 책

어느 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을 때였어.

떠돌아다니며 마귀를 쫓아낸다는 유대인 몇 사람이 바울이 하는 걸 흉내 내며 이렇게 외쳤지.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마귀야, 당장 나가거라!”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들 중의 우두머리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그들을 따라서 흉내 내며 다녔어. 그들이 마침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을 때,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심상치 않게 대꾸했지.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말이 끝나자마자 악한 영 들린 사람이 일곱 아들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고 옷까지 찢어 놓자, 그들은 결국 벌거벗고 다친 채로 도망쳐 버렸어.

이 소문은 에베소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했어.

마술사들 중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이 쓰던 마법책들을 모아 모두 불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 그때 불태운 그 책들의 값이 무려 은화 5만 개나 되었다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퍼져 나가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



그런데 그 일들로 인해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

당시 에베소에는 다이애나 우상의 신전을 만드는 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 그 가운데 은 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는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될까 봐 걱정했어. 그래서 다른 직공들과 함께 큰 소동을 일으켰지.

“위대한 다이애나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우리가 먹고살 길이 없어지고 말겠어!”

사람들은 분노에 휩싸여 큰 소리로 외치며 다니기 시작했어.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

그 소동은 점점 커졌고 그들은 바울의 동료들인 마케도니아 사람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극장 안으로 몰고 갔단다. 바울이 그들을 구하려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붙잡고 말렸지.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요! 기다리세요!”

극장 안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지.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어떤 사



람은 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정작 왜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어. 그때 한 관리가 나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단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가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도시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소란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 일행이 신전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모욕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동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큰 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한순간에 조용해졌고 결국 모두 흩어지면서 소동은 금세 사그라들었지.

졸다가 죽은 유두고를 살리다

그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만나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열심히 격려했단다. 그리스에서도 세 달 동안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곳에서도 바울을 해치려는 유대인들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했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담대하게 나아갔단다. 한편으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은 시간이 갈수록 뜻을 함께하고 힘을 보태려는 성도나 제자들이 점점 늘어났어. 아시아로 갈 때도 많은 동료들이 바울과 함께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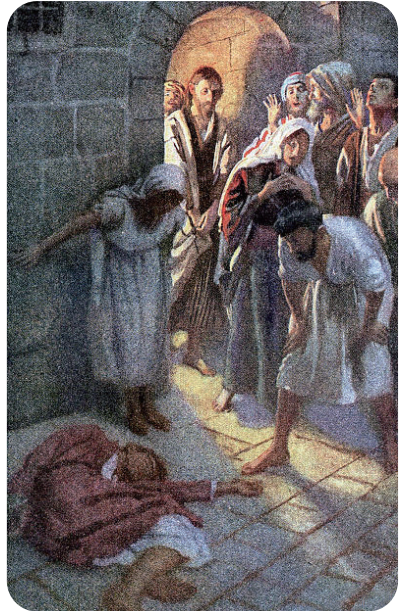
그리고 무교절이 지난 후, 바울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닻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제자들과 다시 만나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단다.

바울이 그곳을 떠나기 전날은 주일이었어. 제자들이 함께 모여 빵을 떼며 예배를 드렸고, 바울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 3층 건물의 다락방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가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바울이 오랫동안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는 깜빡 졸다가 그만, 창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얼른 아래로 내려갔지만, 그 청년은 이미 숨이 멈춘 다음이었단다. 바울도 급히 내려가 유두고를 꼭 껴안은 채 기도하고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유두고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그러고는 유두고를 일으켜 다시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지. 그들은 빵을 떼어 먹으며 날이 새도록 말씀을 나눴고, 다시 살아난 유두고 덕분에 모두들 큰 위로를 받았단다.



이제 아침이 되어 그곳을 떠난 바울은 걸어서 앗소로 갔고 거기에서 일행을 만나 배를 타고 미둘레네로 간 뒤, 그다음 날 기오 맞은편에 다다랐고 그다음 날 사모에 도착해 드로길리움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다음 날 마침내 밀레도에 도착했단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그곳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싶었거든. 마침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은 그동안의 선교 여행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었지.

“나는 그동안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 왔고, 너희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건 뭐든 다 가르쳐 주었느니라. 만나는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앞으로 남은 사명에 대해서도 얘기했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도 고난이 있겠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



까지 감당하겠노라. 어떤 것도 날 막지 못하며 내가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까지 하려 하노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을 나도 아노라.”

분위기는 엄숙해졌고 바울은 계속해서 장로들에게 당부했지.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곧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해치려 할 테니, 항상 깨어 있으라.”

교회에는 바른 믿음을 가진 선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려는 움직임에도 조심하라고 조언했어.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지.

바울은 자신이 항상 그랬듯이 장로들도 제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 그 도움을 통해 자라난 성도들이 더 약한 성도들을 위해 도움을 아끼지 않도록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당부했단다.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하며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느니라.”

모든 당부와 조언이 끝난 뒤, 바울은 무릎을 꿇고 모두 함께 기도했어. 모두들 바울의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그를 껴안고 울었지. 무엇보다도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말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단다.

곳곳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하고는 배를 탔단다.

처음엔 고스 섬에 도착했고, 그다음 날에는 로데스, 또 그다음에는 바다라 항구에 닿았단다. 거기에서 페니키아로 가는 큰 배를 만나 갈아탔지. 항해하

다 보니 바다 한가운데 키프로스 섬이 보였고,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쪽 항해해서 드디어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지. 바울은 그들과 함께 며칠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성령님께서서는 바울에게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거라고 알려주셨어. 그래서 제자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며칠이 지난 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배에 올랐어. 제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나와 바울을 배웅해 주었다.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작별한 뒤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났지.

이후 그들은 톨레마이라는 곳에 도착해 하루를 머물렀고, 다음에는 가이사랴로 갔다. 거기에는 빌립이라는 복음 전도자가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힌 일곱 명 중 한 사람이었지. 빌립에게는 네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들이기도 했어.

며칠 후에는 아가보라는 또 다른 대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뒤 말했다.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의 동료들과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다시 한번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부탁했지. 하지만 바울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어.

“너희가 왜 슬프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노라.”

모두가 그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는 못하고 바울을 위해 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바울과 일행은 짐을 싸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어. 가이사라의 제자들 중 몇 사람도 함께 갔고, 므나손이라는 오래된 신실한 제자도 함께했지.

바울은 이처럼 주님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단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단 한순간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았지.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 고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바울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노력하자꾸나.

요약과 교훈

- 바울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알려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 바울은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적용

- 바울처럼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해요.
-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Part
26

붙잡혀서 로마로 가게 된 사도 바울

바울은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른 곳들에서 제자와 성도들로부터 여러 번 고난과 위협에 대한 경고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가겠다고 마음먹었지.

머칠이 걸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하신 일을 기쁘게 보고했단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



기 때문에, 바울은 오해를 풀기 위해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 바울은 믿음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형제들의 마음을 배려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고 애썼지.

바울을 죽이려던 자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바울은 성전에서 이방인을 데려왔다는 오해를 받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했거든.

“이 사람은 율법과 이 거룩한 곳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심지어 그리스인까지 성전으로 데려와 더럽혔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 바울을 구해 주셨고, 총대장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했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총대장에게 침착하게 자신을 소개하며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내가 백성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겠소?”

총대장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네가 그리스 말을 할 수 있느냐? 설마..., 예전에 광야로 4천 명을 데리고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 유대인이요.”

총대장에게 말할 기회를 허락받은 바울은 계단 위에 서서 손짓으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 히브리 말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내가 이제 하는 나에 대한 말을 들어주십시오.”

바울이 자기들의 말로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가, 예수

님을 직접 만난 뒤 침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덧붙였어.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내가 너를 여기에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며 몹시 화를 냈단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인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이런 사람은 없애 버려야 해!”

“저 사람을 살려 둘 수 없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리자, 로마 총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지.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옳은 일이나?”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자 모두 깜짝 놀랐고, 더 이상 함부로 다루지는 못했어.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해 잘못을 따지기 전까지는 시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었거든.

그다음 날 총대장은 바울의 죄를 확인하려고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바울을 세웠단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

“여러분, 제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단다.

바울은 참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앉아서는 어찌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이 말은 거칠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자기 권력을 함부로 휘두른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

“죄송합니다. 저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너는 네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그 공회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래서 그는 재치 있게 이렇게 말했단다.

“여러분, 저는 대대로 바리새인입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때문에 지금 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났지.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것들을 다 믿고 있었기 때문이거든.

그러다가 결국, 바리새인들 중 몇몇은 바울 편을 들며 말했어.

“이 사람에게서 나쁜 걸 찾지 못하겠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공회 안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지. 총대장은 혹시 사람들이 바울을 해칠까 봐 걱정되어 군사들을 보내 바울을 다시 성채로 데려오게 했어.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있었단다.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오셨거든.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라.”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겠니!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사명을 알려주신 거야.

그다음 날이 되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유대인들 중 40명이 넘는 자들이 몰래 모여 맹세했거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들은 몰래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 주셨단다. 이 음모를 우연히 듣게 된 바울의 조카가 곧장 성채로 가서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바울은 백부장을 통해 조카를 총대장에게 데려가도록 했지.

총대장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은 뒤, 바울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작전을 세웠어. 그래서 밤에 바울을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했단다.

총독 앞에 선 바울

바울은 그렇게 가이사랴에 도착했고,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었어. 총독은 바울의 출신지를 확인한 뒤, 헤롯의 재판정 안에 가두어 지키도록 명령했지.

“네 고소인들이 온 다음에 네 말을 들어 보리라.”

유대인들은 거짓 고소를 하며 바울을 비난했지만, 바울은 조용히 자신을 변호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정직한 삶을 담대하게 고백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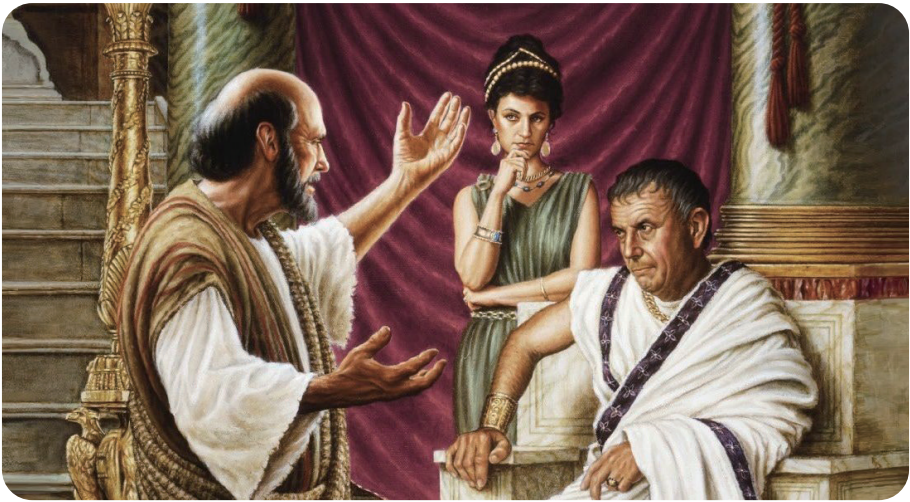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머뭇거렸지.

“총대장 루시아가 오면 그때 다시 조사하겠노라!”

그리고는 바울을 지키도록 명령하긴 했지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

며칠 뒤에는, 벨릭스 총독이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청했단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의와 절제, 그리고 다가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말해 주었어.





그 말을 듣고 벨릭스는 두려움에 떨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그만 돌아가거라. 다음에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하지만 속으로는 바울이 돈을 주면 풀어 주리라고 생각하면서 자주 바울을 불렀지. 바울은 결코 돈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단다.

믿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만 의지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려 이 년이 지났고, 벨릭스는 다른 총독인 보르기오 베스도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어. 벨릭스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바울을 여전히 감옥에 묶어 둔 채로 남겨 두고 떠나고 말았단다.

바울이 여전히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랴에 있었고, 유대인들은 새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다시 고소했지만 어떤 죄도 입증하지는 못했어.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도 있을 수가 없었지.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해 달라고 베스도 총독에게 간청했는데, 사실 그 속셈은 바울을 길에서 몰래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 다행히 베스도는 그 요청을 거절하고, 가이사랴로 내려와 바

울을 정식 재판으로 고소하라고 말했다.

바울은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며 카이사르에게 상소했는데, 이는 지혜롭고 담대한 선택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길을 여신 거였어.

며칠 뒤 아그립바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을 때, 베스도가 말했어.

“바울이 죽을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 문제 때문에 자기들끼리 고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고, 바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야 하긴 하지만, 그에게 정확히 무슨 죄가 있다고 써 보낼지도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은 갑자기 바울의 사건에 관심을 보였지.

“나도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고 싶구나.”

그래서 이튿날, 큰 청문회가 열렸단다.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화려한 복장에 많은 수행원을 이끌고 청문회장엔 들어섰고, 거기에는 총대장들과 도시의 고위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어.

바울은 그런 사람들 앞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 나왔지만, 그 마음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지.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진 걸 감사히 여겼을 거 같구나.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했어.

“자, 네가 할 말을 해 보아라.”

“아그립바 왕이여, 제가 이렇게 왕 앞에서 모든 일에 대해 답변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왕께서는 유대인들의 풍습과 문제들을 잘 알고 계시기에 제 이야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단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했지만, 그 일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고소당한 거라고도 말했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는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들과 모세가 전했던 말씀, 즉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그 말씀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총독 베스도는 큰 소리로 외쳤다.

“바울아, 네가 너무 배워서 미쳤구나!”

하지만 바울은 침착하게 대답했지.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님.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누구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며, 아그립바 왕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왕께서는 모두 믿으시는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조용히 말했단다.

“네가 나를 설득해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지.

“왕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체포되어 묶인 걸 제외하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바울의 말을 들었고, 왕과 총독,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서로 말했어.

“이 사람이 결박되어야만 하거나, 죽을죄를 지은 게 전혀 없소.”

“바울을 여기에 가둬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그립바 왕이 마지막으로 말했지.

“이 사람이 카이사르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풀어 줄 수도 있었을 거 같군.”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바울 일행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 올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겨졌단다.

그들은 아드라미티움 배를 타고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를 시작했어. 바울과 함께한 사람 중에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아리스다고도 있었지.

이튿날,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올리오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여 동료들을 만나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 어쨌든 바울은 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따뜻한 배려였어.

하지만 항해는 점점 어려워졌어. 바람이 거세게 불어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고, 이리저리 돌아 크레타 섬 남쪽의 ‘아름다운 항구’ 까지 어렵게 도착했지.

그때 바울이 선원들에게 말했어.

“여러분, 제가 보기에 지금 이 항해는 아주 위험하오. 배와 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소.”

하지만 선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백부장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지. 결국 사람들은 겨울을 보내기엔 불편한 그 항구를 떠나 조금 더 나은 항구인 베니게로 출발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루돈이라는 아주 큰 폭풍이 불어 닥쳤단다!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었기 때문에 배는 도저히 조종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들은 바람이 이끄는 대로 배를 맡겨야 했어. 심한 폭풍 속에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들을 바다에 버렸을 뿐만 아니라 배의 밧줄을 감는 장치도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었지.

폭풍우는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14일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어.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구원받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단다.

바울이 다시 모두 앞에 나섰지.



“여러분, 내 말을 들었어야 했지만 지금에 와서야 어찌겠소? 그러나 이제는 기운을 냅시다. 이 폭풍 속에서 배만 잃을 뿐 우리 중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요. 하나님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셨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서야 하리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모두를 내게 맡겼느니라.’라고 말이오.”

바울은 이어서 힘 있게 격려했어.

“그러니,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소.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이든 가게 될 것이니 힘을 냅시다.”

14일째 밤, 선원들은 어느 정도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아챘어.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보니, 조금씩 얕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암초에 부딪칠까 봐 닻을 네 개나 내려놓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 틈을 타 선원들이 거룻배를 바다로 몰래 내려 도망치려고 했어.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을 거요.”

그래서 백부장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바다에 떨어뜨렸어.

날이 밝아올 무렵, 바울은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 주었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까지 14일째 굶었소. 이제는 음식을 좀 드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겠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지켜 주실 것이니 믿으시오.”

그리고 바울은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떼어 먹었어.

모두가 바울을 따라 기운을 내고 함께 음식을 먹었는데, 그 배에는 전부 276명이나 있었어. 식사를 마친 뒤, 사람들은 식량도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지.

그리고 해변 가까이 보이는 작은 항만에 배를 대려고 했지만, 얼마쯤 가다

가 배가 암초에 걸려 앞부분은 단단히 박히고 뒷부분은 파도에 부서지고 말
았어.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모두 죽이자고 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어 그 뜻을 막았지.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단다.

“해엄칠 수 있는 자들은 먼저 바다로 뛰어들어 육지로 가라! 나머지는 나무
조각이나 배의 부서진 조각을 붙잡고 가거라!”

그 덕분에 모두가 무사히 육지에 도착할 수 있었지.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
했던 상황이었지만,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단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야.

폭풍우로 파선한 바울과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멜리데 섬으로 피신했단
다.



비가 내려 더 추운 날씨였지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 바울 일
행 모두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아 주었어.

모두들 불을 가운데로 둥그렇게 앉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바울이 나뭇가
지를 한 다발 모아 불 위에 넣을 때였어! 뜨거운 열기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
와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지.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분명히 저 사람은 살인자로군!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신의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야!”

바울은 그 독사를 불 속에 털어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멀쩡했지만,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곧 부어 오르거나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그가 곧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자, 생각을 엉뚱한 쪽으로 바꾸었어.

‘그가 바로 신인 게 틀림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지켜 주셨다는 사실이 그 섬사람들에게 알려졌지.

그 섬의 우두머리 보블리오는 친절하 사람이어서 사흘 동안 바울 일행이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쉬면서 보니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로 병이 나 누워 있었어.

바울이 그에게 다가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자 곧 나았단다!

이 기적을 본 다른 사람들도 몰려와 각자의 병 고침을 받았고, 그로 인해 섬사람들은 더욱 친절하고 배려를 해 줬어. 바울 일행이 섬을 떠날 때는 필요한 많은 물건들을 준비해 주었다.

석 달 동안 그곳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 바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그들은 시러큐스에서 사흘을 머물고, 레기움에 도착한 그다음 날 남풍이 불어 푸테올리까지 항해했다.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 그들과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다가 마침내 로마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로마에 가까워졌을 때도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아피아 광장과 ‘세 여관’이라는 곳까지 바울을 맞으러 나왔고 그들로 인해 더욱 용기를 얻은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여전히 죄인 신분이었지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 바

울이 예전에 머물던 집에서 그를 지키는 군사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었단다.

사흘 후, 바울은 로마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렀어.

“여러분, 나는 우리 조상들의 관례를 어긴 일이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죄수로 로마에 오게 되었소. 심문 후에 로마의 치리자들은 내게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나를 풀어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했기에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항소했소. 항소한 이유도 우리 민족, 유대인들을 고소하려는 게 전혀 아니오. 이 점에 대해 분명히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싶었소.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대답했지.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했고, 아무도 당신을 나쁘게 말하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이 믿는 그 분파에 대해서는 많은 곳에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직접 듣기를 원했소.”

그래서 그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정했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찾아왔고, 바울은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단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

그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을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단다.

떠나기 전, 바울은 이사야 대언자의 말씀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어.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



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행 28:25-28)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자기 집에 갇힌 채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없긴 했지만, 집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님에 대해 확신 있게 가르쳤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아무도 막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항상 함께하셨기 때문이란다.

요약과 교훈

-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여러 번 고소당하고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이사랴와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 바울은 총독들과 왕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고, 폭풍우를 만나 배가 부서지는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했어요.
- 바울은 로마에서도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보호해 주셨어요.

적용

-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용기를 내어요.
-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해요.
-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걸 기억해요.

7 Churches of Revelation



Ephesus



Smyrna



Pergamos



Thyatira



Sardis



Philadelphia



Laodicea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 이 교회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안에 있던 교회들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각 교회의 속마음과 상태에 대해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떤 점은 고쳐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직접 알려 주셨어.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지.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계 2:7, 11, 17, 29; 3:6, 13, 22)

이 말은 “마음의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이야. 하지만, 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당시의 그 교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해.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혹시 내게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내가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생각하며 읽으면 좋겠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바라시고 그 사랑을 처음처럼 끝까지 지켜 가기를 원하신다.

1.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편지를 보내신 일곱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란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었던 아주 큰 도시였어. 이 도시는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여서 사람들과 물건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무역의 중심지였지. 그래서 ‘아시아의 시장’, 또는 ‘문명의 빛’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했단다.

에베소라는 이름은 ‘흠모할 만한’, 그러니까 참으로 존경스럽고 아름답다는 뜻도 가지고 있었어. 처음에는 정말 멋지고 부유한 도시였지.

하지만 이 에베소는 사람들과 물건만 많이 오간 게 아니라, 나쁜 종교와 잘못된 믿음도 함께 들어오는 곳이었단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다이나나 신전이었지.

다이나나는 고대 로마 사람들이 여신처럼 숭배하던 신이었는데,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일곱 가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크고 웅장했다는

구나. 게다가 에베소 사람들은 황제도 신처럼 섬기고, 신비한 주문을 외우는 마술과 부도덕한 의식들을 곳곳에서 행했어. 처음엔 문명의 빛처럼 보였던 이 도시는 점점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 생각하는 도시로 변해 버리고 말았단다.

하지만 그런 어두운 도시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어. 바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지!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 선교 여행 때는 이곳에서 직접 2년 넘게 머물며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쳤단다. 에베소 교회는 일곱 교회 중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지.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회당도 있었단다. 처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갔지. 이런 특별한 배경 속에서 자란 에베소 교회는 처음엔 믿음도 뜨겁고 복음을 지키는 데도 아주 열심이었단다. 하지만 나중에는 사랑이 식어 버리는 아쉬운 모습도 보였지.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라는 말만 떠올리곤 해. 그렇지만,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점이 훨씬 더 많은 훌륭한 교회였단다.

에베소 교회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주 강했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도 단호하게 막아 냈지. 예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셨거든.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었어.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이었단다.

‘처음 사랑’이란 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졌던 뜨겁고 순수한 마음을 말해.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



말이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 가고 있었던 거야.

예수님께서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러니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하느니라.”

교회가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마음이 식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교회가 되고 말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삶을 살기 원하시거든.

그러니 우리도 가끔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해.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처음처럼 사랑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야.

2. 서머나 교회

서머나는 옛날 옛적부터 항구 도시로 아주 유명했어. 그래서 많은 배들이 드나들며 여러 나라의 물건과 문화가 오갔지.

학교에서 배우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쓴 호메로스라는 유명한 시인이 바로 이 도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구나.

서머나는 주전 300년쯤 되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직접 계획하여 세운 도시였어. 그래서 도시가 아주 정리되어 있고, 깔끔하고, 아름다웠단다. 사람들이 이곳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꽃’, ‘이오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는 멋진 별명들로 불리기도 했어.

이 도시는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로마 제국에게 초기부터 충성을 바친 도시이기도 해. 그래서 로마는 이 도시를 자유 도시로 삼아 특별한 대우를 해 주었던단다. 덕분에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어.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 ‘서머나’는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몰약은 옛날에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 바르던 향기로운 기름이야. 예수님께서 태어

나셨을 때 동쪽에서 찾아온 지혜자들이 드렸던 선물 중 하나도 바로 이 몰약이었지. 그래서 서머나라는 이름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향기를 풍기는 믿음을 떠올리게 한단다.

이처럼 길으로는 아름답고 부유했던 서머나였지만, 그곳에 살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서머나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 어떤 사람들은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했어.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뿐만 아니라, 죽음당할 위험도 많았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서머나 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 주셨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전에 죽었다가 지금 살아 있느니라. 너희의 어려움을 알고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너희가 가난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너희는 영적으로 부유하니라. 앞으로 당할 어떤 일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신실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신단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든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는 더 큰 상을 주실 거란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 서머나 교회를 많이 칭찬하셨어.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친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옳은 일을 하다가 혼날 수도 있지. 그럴 때마다 서머나 교회를 기억해 보렴.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생명의 왕관을 보상으로 주신단다.



3. 버가모 교회

버가모는 바다에서 조금 떨어진 아주 큰 도시였어. 옛날엔 250년 동안이나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불릴 만큼 유명하고 변화한 도시였다는구나. 거기에는 수많은 건물과 아름다운 문화재들도 많이 있었대. 그리고 아주 큰 도서관도 있었는데 이곳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다음으로 유명했다고도 해.

이처럼 겉으로는 멋지고 편리한 도시였지만, 믿음을 지키기엔 아주 힘든 곳이었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황제를 신처럼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예배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위험한 핍박도 당했어.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예요!” 하고 당당하게 말하곤 했다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놀리거나 겁을 줘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어. 예수님도 이 점을 아주 크게 칭찬하셨지.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에도 고쳐야 할 문제가 있었단다.

그 교회 안에는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의 제사를 따라 하고, 나쁜 행동도 서슴지 않았어. 또 어떤 이들은 니콜라당의 거짓된 교리를 따랐는데, 이 교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지도록 만들었지. 더욱이 니콜라당의 교리에는 사람들 간에 차별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는 높고 평신도는 낮다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었던 모양이야.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인 교회를 보시고 “회개하라!”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네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니콜라

당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과 싸우리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니란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도 잘못된 생각이나 습관이 들어올 수 있거든. 하지만 그런 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반드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해. 그리고 나서 바른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서는 잘못된 사람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단다. 버가모 교회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 안에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더욱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란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예수님, 제가 잘못된 게 있다면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면 늘 용서해 주시고 바른길로 인도해 주신단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때니? 학교나 학원에 가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컴퓨터나 핸드폰도 사용하지.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

살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가득하단다.

혹시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 있니?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고 조금 거짓말하는 건 괜찮아.’

‘친구들처럼 멋진 옷을 입고, 비싼 장난감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놀림당할까 봐, 그냥 말 안 할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올 때가 있지.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들이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생각, 말투, 행동을 따라 살기보다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

4. 두아디라 교회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이후, 그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셀레우코스 1세가 이곳을 군사 식민지로 삼으면서 자신의 딸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구나. 두아디라는 크고 화려한 도시는 아니었지만, 염색 공장이 많았던 걸로 유명했어.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옷감에 색을 입히는 일을 많이 했지. 그리고 일찍부터 유대인들을 받아들여서, 모세의 율법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도시 중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였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이 있었다단다.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보시고 기뻐하셨어. 특히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열심히 믿음의 행위를 했다며 칭찬하셨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었던 거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며 얼마나 관심 있게 보셨는지를 알려 주셨단다.

하지만 이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짓 대언자를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어. 이 여자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해도 괜찮다고 말했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엉망인 헛된 제사들도 지내게 했다는구나.

이러다 보니 이세벨의 말에 속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어도, 실제로는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어. 오히려 자신들도 모르는 새에 교회를 망치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께서서는 그런 거짓 대언자들과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을 절

대 용납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무서운 심판, 곧 죽음이 라는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단다.

다행히도 모든 사람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어.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있었거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는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 앞으로 도 믿음을 지키고 시험을 이기며 끝까지 신실하거라.”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과 믿음이 진짜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고 있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섬 기는지를 다 보고 계시거든.

5. 사데 교회

사데 도시는 양탄자와 양털 옷으로 유명했어.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 동전을 만든 곳이기도 해. 하지만 훗날, 이 도시는 큰 지진이 나면서 무너지고 말았어. 아무리 좋고 유명하거나, 부유해도 세상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 준단다.

이 도시의 사데 교회도 겉으로 보기엔 참 멀쩡했어. 교회 건물도 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였지. 재정도 넉넉했고, 교회의 조직도 잘되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사데 교회에 칭찬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네 행위를 알며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어 있음을 아노라.”

사데 교회는 겉보기엔 살아 있는 거 같았지만, 속은 완전히 죽은 교회였다고 말씀하셨던 거야.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도, 순수한 마음도, 진정한 회



개도 없었지.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어. 마치 힘이 아주 셉지만, 결국 슬픈 결말을 맞이한 삼손을 생각나게 하는구나.

사데라는 이름은 ‘도망하는 자’ 또는 ‘빠져나온 자’라는 뜻이 있어. 이것은 원래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온 사람들, 곧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도 다시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던 거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듣게 된 거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은 먼저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어. 그리고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다시 강하게 하라.”라고도 하셨어. 다시 말해서,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믿음의 불씨가 있으니, 그것을 꺼뜨리지 말고 더욱더 잘 살려야 한다는 말씀이었지.

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그냥 정죄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한단다.

그런 교회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바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문제를 느끼고 “이대로는 안 돼!” 하고 깨어나는 것부터란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교회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면 귀 기울여 듣고 모두 바른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야. 바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며 회개할 때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이 사데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항상 내 자신이 진짜 살아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해. 그냥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란다.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항상 깨어 있는 우리들이 되자꾸나.

6.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함께 단 한 번도 책망받지 않은 아주 모범적인 교회란다.

먼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 이름부터 이야기해 줄게. 이 이름은 ‘필로’는 사랑, ‘델포’는 형제를 뜻해서, 두 단어를 합치면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돼. 이름부터가 참 따뜻하지 않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200년 전쯤에, 버가모 왕국에 아탈로스 2세라는 왕자가 있었어. 이 왕자는 형 에우메네스 2세를 많이 존경하고 사랑했지. 그래서 사람들은 아탈로스 왕자를 두고 이렇게 불렀단다.

“필라델포스!”

이 말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에우메네스가 왕이 된 뒤에도 아탈로스는 그의 곁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도왔다는구나.

그런데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에우메네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 그러자 백성들은 슬퍼하며 그의 동생 아탈로스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어. 아탈로스는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단다. 그리고 아탈로스는 형에 대한 사랑을 기념하여 한 도시를 세우고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지었지.

하지만 얼마 뒤,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

죽은 줄만 알았던 형 에우메네스가 살아서 돌아왔거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

‘이제 두 형제가 싸우게 되는 걸까?’

하지만 아탈로스는 왕위에 전혀 욕심을 내지 않았단다.

“형님, 진짜 왕은 바로 형님이에요. 이 자리는 형님 거예요.”

그리고는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기꺼이 왕관을 형에게 돌려주었던 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감동했어.

“이런 사랑이 정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에우메네스 왕 역시 죽을 때가 되자,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동생인 아탈로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고 하는구나.

너무 멋진 형제 사랑 이야기이지 않니? 우리도 에우메네스와 아탈로스 형제처럼 형제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 보자꾸나.

그리고 필라델피아 도시는 소아시아 고원과 서쪽의 서머나 사이에 있는 중요한 산업 도시였어. 특히 포도 재배가 활발해서, 사람들이 디오니소스라는 포도주의 신, 즉 로마 신화의 박카스를 숭배하기도 했지.

이런 도시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작고 소중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지.

예수님께서서는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칭찬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이었단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그 교회의 믿음과 순종이 아주 훌륭했다고 하셨어.

이 교회는 사람 수가 적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으며 세상적인 힘이나 영향력도 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단다. 핍박이 있을 때에도 끌려가서 믿는 자들을 배신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다는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어. 이 말씀은 앞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기회와 사명이 열려 있다는 뜻이었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는 힘이 세 보이지 않았지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였단다.

이 교회 안에도 거짓 유대인들, 즉 겉모습은 유대인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었지. 하지만 예수

님은 참된 성도들에게 그들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어. 이 교회는 환난 전에 하늘로 올려지는 교회의 예표가 되는 교회야. 예수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부,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되어 하늘에서 예수님과 혼인 잔치를 하게 되거든.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계 3:10)

예수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내가 곧 갈 때까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네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뜻이지.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왕관 같은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어. 의의 왕관, 썩지 않는 왕관, 영광의 왕관, 환희의 왕관, 생명의 왕관 등 정말 아름다운 상들이 기다리고 있단다!

비록 사람들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거나 가진 게 적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될 거란다.

7.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곳인데, 예수님께 가장 심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이기도 해.

라오디게아라 도시는 옛날 브루기아 지방의 리쿠스 계곡에 있었고, 아주



부유한 상업 도시였어. 검은 양털로 만든 고급 옷감과 안약 가루로 유명했고, 부자들이 많은 도시였지.

그리고 이곳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북쪽 10킬로미터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길게 이어진 수로를 통해 온천수를 끌어왔단다. 이 뜨거운 온천수는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 버렸어. 게다가 그 물은 광물이 섞여 있어서 마시기도 힘들었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입에서 토해 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도시의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었단다.

도시의 이름인 라오디게아는 ‘라오스’, 즉 ‘백성’과 ‘디케’, 즉 ‘정의’라는 말이 합쳐져서 지어졌어. 이름처럼 사람들의 의견과 다수의 판단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지. 말하자면 모든 걸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적인 교회였던 거야.

그런데 교회는 세상처럼 다수결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란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곧 그리스도시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해.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기준을 버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어. 예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해졌고, 말씀보다 인기, 믿음보다 외모,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지.

“네가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 것이니라.”

여기서 ‘뜨겁다’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해. 반대로 ‘차갑다’라는 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완전히 마음이 굳은 사람이란단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중간인 미지근한 상태였어.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위선적인 상태였던 거지.

예수님은 이 교회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사라고 하셨어.

첫째는 불로 단련한 금, 둘째는 흰옷, 셋째는 안약이야.

불로 단련한 금은 확실한 믿음을 뜻해.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하거든.

흰옷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한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씻음을 받고 새 옷을 입은 것처럼 변화되거든.

안약은 눈을 뜨게 해 주는 영적인 깨달음을 뜻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예수님께서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신다는 뜻이야. 예배당은 있지만 예수님은 없는 교회,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거야. 이 말씀은 그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도 늘 스스로 이렇게 물어봐야 한단다.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

‘혹시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세워 두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예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꼭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거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더라도 회개를 멈추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더라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을 살피



서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바른길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만 해.

예수님께서서는 깨끗한 마음, 정직한 고백,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신단다.

믿음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해. 엄마 아빠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도 믿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야. 나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한단다.

..... **요약과 교훈**

- 예수님께서서는 아시아에 있던 일곱 교회에 각기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칭찬과 책망, 그리고 회개의 권면이 담겨 있었어요.
-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서머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대언자를 받아들였어요.
- 사데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은 죽어 있었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믿음과 위선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 **적용**

- 항상 내 마음을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돌아보아요.
-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Part
28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영광의 왕 그리스도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적은 책이란다. 요한은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 로마 황제 도미티안 때문에 외딴섬인 밧모 섬으로 유배되어 갔어. 그곳은 바위투성이의 섬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



않았고 요한은 혼자서 조용히 살아야 했지. 하지만 그 고요하고 쓸쓸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하라. (계 1:19)

요한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알려 주고 싶은 아주 특별한 말씀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받아 적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된 거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계 1:3)

이 책을 읽으면 왜 복을 받는지 아니?

첫째,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서,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둘째, 예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이 담겨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 즉 재림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알 수 있어.

셋째, 성경의 시작과 끝을 연결해 주는 진리의 동그라미를 완성할 수 있단다.

넷째, 성경 전체의 요약과 결론도 알 수 있게 돼. 특히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26권의 내용이 이 계시록에 인용되어 있을 정도야.

성경은 아주 두꺼운 책 안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딱 하나야.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란다.

성경책에는 유대인과 교회가 자주 등장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거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왕들의 왕, 주

들의 주로 계셨지. 설령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참된 왕이시란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 9:6)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즉 사람으로 오실 것을 미리 알려 주신 거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은 진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 일은 단 한 번만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었단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번 죽으시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거든.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 준단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영원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사람이나 사건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세우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거든.

성경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온 세상에는 7년 동안의 환난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간이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 거짓 대언자들과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도 나타나게 되지.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걸 다스리실 거라는 사실이란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우리는 환난 전에 예수님께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받게 되니까 말이야.

구원받은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분명한 것처럼, 이 세상의 미래도 분명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판단하실 거야.



그의 정권의 확장과 평화의 증진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군대들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시리라. (사 9:7)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해. 성경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글자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땐 말씀해 주시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도 잘 살펴봐야 해. 4장과 5장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고, 6장부터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

요한계시록의 4장부터 19장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도 기억하면서 읽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같은 기간의 일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거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처음 주신 약속, 즉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 에덴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끝없이 이어지게 될 거란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대로 지켜야 하는 거란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 22:7)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둘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보존

하고 보호하는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멋대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도 남기셨지.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기록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계 22:18-19)

단순히 겹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다른 내용으로 고치는 일은 마귀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소중하게 지켜야 해.

구약 시대 때 대언자 다니엘에게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봉인하라고 하셨지만, 요한에게는 “봉인하지 말고 드러내라.”라고 하셨단다. 왜냐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야. 이제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때라는 뜻이지.

예수님께서는 보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로 주리라. (계 22:12)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평가도 하신단다. 그리고 이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뤄지게 될 거야.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며,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내시는 분이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 22:13)



알파는 그리스어 문자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란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취할지니라. (계 22:17)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값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란 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로, 2천 년가량 지난 시간이 흘렀지. 어떤 사람은 “왜 아직도 안 오시지?” 하고 궁금해하기도 해.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이행*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9)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세 번이나 곧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내가 속히 가리라. (계 22:7, 12, 20)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실천하며 바르게 사는 삶을 살아야겠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은 아니란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삶의 동기이기도 하거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고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 내셨던 걸 기억하렴.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동일한 소망을 우리도 갖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구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계 22:20)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길 할머니는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 22:21)

..... 요약과 교훈

-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님이시며,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보여 주는 책이에요.
-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해요.

..... 적용

-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읽으며, 있는 그대로 믿어요.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정직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아요.
- 성경을 공부할 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Part
29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년 왕국

천 년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니?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왕이 되셔서, 천 년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시간이란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때를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계 21:5)

정말 가슴 벅차지 않니? 예수님께서서는 영광 가운데 내려오셔서 악한 자들

을 물리치시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참된 왕국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땅에 있던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의가 가득한 세상이 되지. 저주도 없고 매일매일 날씨도 맑고 기후도 아주 좋은 환경이 된단다. 그리고 전쟁이나 기근이 없고 질병도 거의 없어져서 사람들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니 어떤 사람은 천 살까지도 산다고 해.

이때는 사자도 풀을 뜯어 먹고 어린양과 함께 뒹굴며 노는 세상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구나! 이 땅은 다시 아름답고 평화로운 에덴동산이 되는 거지. 이사가 대언자가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했던 대로 말이야.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 떼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사 11:8)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통치’란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즉 이 땅에 처음 오신 것과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서게 될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지. 구약의 모든 대언서들도 ‘여자의 씨’, ‘메시아의 통치’ 등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어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다가오는 왕국에 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나?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 6:10)

그럼, 이 천년 왕국에는 누가 들어가게 될까?

구원받은 사람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7년 환난기’가 시



작되기 바로 직전에 휴거되어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휴거 이후 시작될 이 땅의 환난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겪는 기간이거든.

그리고 그전에는 전혀 믿지 않다가 환난기 때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7년 환난기가 끝나는 시점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단다.

그런데,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 천년 왕국을 믿지 않고, “그건 그냥 상징일 뿐이야”, “마음속의 평화가 곧 왕국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안타깝구나.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한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반드시 모두 이뤄진다고 하셨거든. ‘어떤 건 이뤄질 거고 어떤 건 이뤄지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거고, 그분께서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시는 왕국이 실제로 펼쳐진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해 주고 있기 때문이란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어.

그건 바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속여 온 사탄을 없애시는 일이야. 성경에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도 부르지. 이 악한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단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탄을 붙잡으시고는 아주 깊은 감옥인 ‘바닥없는 구덩이’에 천 년 동안 가두신단다.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계 20:2-3)

이곳은 빛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곳이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자유롭게 다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그때에는 천 년 동안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천년 왕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바르게 다스리실 거란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서만 다스리시지는 않는다고 하셨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린다고 하셨거든.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 지금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교회 시대 성도들과 그중에 이미 하늘나라로 간 사람들, 그리고 환난기를 지나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까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는 거란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지.

첫째 부활이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더는 죽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지. 참 놀랍고도 멋진 약속이란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계 20:6)

천년 왕국 동안 즉, 천 년 기간이 끝날 때에 그동안 ‘바닥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사탄은 다시 풀려나게 된단다.

사탄이 풀려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반항하려 할 거야.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는 모두가 믿는 사람들이었지



만,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게 되거든.

그 사람들은 사탄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공격할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시고, 사탄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영원한 불 호수에 던져 버리실 거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 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계 20:10)

그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단다.

흰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야. 이 심판대 앞에 그들 모두가 불려 나와서 각자 살아온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재판받게 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이 사람들은 모두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란단다. 이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아주 슬픈 상태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단다.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 즉 생명책이 펼쳐져 있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그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계 20:11-12)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가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야.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란단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실 거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 수 있지만, 천년 왕국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 그때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 열리게 되는 거란다.

요약과 교훈

- 천년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천 년 동안 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진짜 왕국이에요.
-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흰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돼요.

적용

- 천년 왕국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하나님의 약속이란 걸 믿어요.
-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려요.
-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Part
30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

벌써 마지막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되었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우리가 살던 곳과 다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새롭게 마련해 주시는 놀라운 공간이란다.

약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위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던 일, 기억하니? 그곳은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었지.

하지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바람에, 세상에는 사망, 즉 죽음이 생겼고 이와 함께 부패와 저주가 들어오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엔 아프고 슬프고 때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란다. 성경에는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고 심지어 하늘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엔 깨끗하지 않다고 기록되어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새롭게 하실 날을 정해 두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 주시고, 모든 반역을 깨끗이 없애실 거야. 마침내 계획하신 모든 걸 다 마치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새로운 집을 주시는데 바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이란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그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 66:17-18)

지금의 하늘과 땅은 불로 깨끗하게 정화된 뒤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뜻이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되리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벧 후 3:10-13)

그리고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집이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
시리라. (계 21:3)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걸으셨고,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셨단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서
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고 지금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지.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며 걸
을 수 있게 될 거란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니!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단다. 죽음도 없고 아픈 일도 없고 슬
픈 일도 없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시는 없게 될
거란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한 약속은, 참되고 신실하
다고까지 말씀해 주셨어!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계 21:5)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의 도시’라고도 불
린단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계 21:2)

마치 선물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이 도시가 정확히 땅에 딱 내려앉는지
는 잘 모르겠구나. 성경에도 그건 분명히 나와 있지 않거든.

이 도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신비로운 모습이야.

도시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아서 정사각형 또는 피라미드처럼 생겼
다고 하는구나. 그 길이는 무려 2,240킬로미터나 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되니? 지구의 지름이 약 12,756킬로미터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 다섯 배나 되는 도시라는 거야.

이곳에는 우리가 있을 곳이 아주 많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요 14:2)

성경에 보면 이 도시의 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약 65미터쯤 된다고 해. 그런데 도시 자체가 2,240킬로미터 정도로 높으니까, 아마도 그 벽은 마치 63빌딩 주위에 손가락 두께만 한 담을 세운 것처럼 아주 낮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도시에는 열두 개의 문이 있고, 각각의 문은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다는구나. 그 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고, 또 각각의 문에는 한 명씩 천사가 지키고 있을 거야. 열두 문은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배치되어 있고 성벽에는 열두 개의 기초가 있는데, 그 위에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즉, 이 도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과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온 가족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 도시의 시민으로 부르신 거란다.

그리고 도시 안에는 왕좌가 있고,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신단다. 거기에는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도 있고, 스물네 명의 장로들, 구원받은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게 되지.

그뿐만이 아니야.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도 다시 등장한단다. 바로 에덴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말이야. 에덴동산에서 사라졌던 그 나무가 이제 다시 나타난다고 하니,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니?



그리고 이 도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몸도 지금과는 다르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전 15:44)

부활한 몸, 즉 ‘영에 속한 몸’은 더 이상 늙거나 병들지 않고, 중력이나 시간에 얽매이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 주신 것처럼, 살과 뼈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단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건 아니고 서로를 알아보며 기쁘게 만나게 될 거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은 교제의 장소이기도 하단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기뻐하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아주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될 거란다.

천국은 찬양도 마음껏 부르는 곳이라는구나. 우리 모두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게 찬송을 부르는 거지.

또한 천국은 간증의 장소이기도 하고, 섬김의 장소이기도 하단다.

그리고 천국은 배움의 장소인데, 우리가 지금은 미처 다 알지 못하는 것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기 때문이란다.

천국에는 바다, 눈물, 죽음, 아픔, 해와 달, 불안과 밤, 죄, 병과 저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단다. 그렇지만 천국에는 영광, 거룩함, 아름다움, 하나님의 빛, 하나 됨, 완전함, 기쁨,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이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고전 2:9)

우리가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도 이토록 놀랍고 신비로운 천국을 다 그려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말이야.

이 놀라운 이야기를 꼭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마음먹자꾸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자!

..... **요약과 교훈**

-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고, 그곳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우리 모두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집이에요.
- 천국에는 바다, 눈물, 죽음, 아픔, 해와 달, 불안과 밤, 죄, 병이나 저주가 없어요.
- 천국에는 영광, 거룩함, 아름다움, 하나님의 빛, 하나 됨, 완전함, 기쁨,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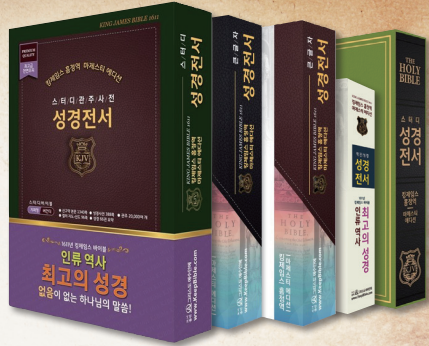
- 천국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진짜 집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 가도록 해요.
-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봐요.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진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진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화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부와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짚은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아돔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상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비리침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회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운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과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불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말하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